



Chào buổi sáng, Incheon

グッドモーニング仁川

Доброе утро, Инчхон

早上好，仁川

Good Morning Incheon

굿모닝인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시정 소식지 ‘시 기반 다국어 번역’ 서비스 실시

300만 인천인 이 함께 보는 굿모닝인천

인천 시민 300만 명,
인천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8만 1,000여 명.
인천으로 하나 되는 행복의 모자이크.

영어, 중국어(간체),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굿모닝인천>이 5개 언어로
‘300만+ 인천인’의 행복 이야기를 전합니다.



<굿모닝인천> 2024년 4월호 ‘인천 하늘 땅 바다, 확 바뀐다’ 기획 기사에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정 소식지 최초, ‘시 기반 다국어 번역 서비스’가 펼쳐집니다.

굿모닝인천





인천은 [등대] 다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어릴 적, 뜻도 모르고 흥얼거렸던 동요 ‘등대지기’ 가사의 마지막 구절이다. 낮에도 밤에도 한 줄기 빛으로 망망대해를 지키는 등대의 일생은 거룩하고 아름답다. 등대가 뿜어내는 섬광을 바라보며 인천을 떠올린다. 최근 수년간 인천을 누비며 많은 사진을 카메라에 담았다. 어느 순간, 인천은 하늘·땅·바다를 모두 품은 도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세계와 이어지는 공항, 가능성의 바다를 품은 항만,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원도심과 신도시까지…. 마치 등대와 같이, 인천은 찬란한 빛으로 성공적인 도시 모델의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 빛의 끝자락에는 인천의 하늘 아래서, 인천의 바다를 바라보며, 인천의 땅을 딛고 선 1,000만 시민의 행복이 있으리라. 축복과도 같은 하늘과 땅, 바다를 무대로 새로운 길을 열고, 서로의 길을 잇고, 모두의 길이 되는 인천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등대’다.



글·사진 유승현 사진작가

APRIL 2024

INCHEON MONTHLY
MAGAZINE
VOL.364



굿모닝인천 웹진 오디오북 듣기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24년 4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강성욱(대변인)
편집주간 한영진(홍보기획관)
편집장 임성훈
편집위원 정경숙·최은정
사진 임학현·최준근·유승현·박재현
제작 웨스트코(주)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54-6280000-000080-06

04	인천 미소 슬며시 피어오른 그때의 추억	42	문화 캘린더 인천시립합창단 제185회 정기연주회 외
05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또 만나요, <굿모닝인천>!	44	시민의 시선 나무와 숲
06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인천 하늘 땅 바다 확 바뀐다	46	이미지 뉴스 인천 I-패스
12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 선정	48	시장 뉴스 APEC 유치, 인천은 준비됐습니다 외
20	굿인이 만난 사람 김기룡 (사)인천섬유산연구소 이사장	51	땅 이름 이야기 연수구
22	사람+사람=?! 소청도 등대	52	의정 뉴스 행복을 실현하는 시민의 대변자 외
26	인천에서 인천으로 귀어 ^{歸漁} , 바다로 간 사나이	54	컬러링 인천 백령·대청 세계지질공원 후보지 선정
30	요즘, 인천 시속 300km의 세계, 슈퍼바이크	56	인포 박스 배움에 늦음은 없습니다 외
34	내가 사랑하는 인천 신용석 인천개항박물관 명예 관장	58	시민 행복 메시지 하늘·땅·바다의 도시 이야기
38	문화 인포그래픽 문화가 일상에 흐르는 행복한 도시	59	인천사진관 무장에 나눔길
40	문화 줌 인 최정숙 개인전		

<굿모닝인천>은 웹진(www.incheon.go.kr/goodmorning), 인터넷 서점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위한 전자책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지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일부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 주소 변경 및 해지 문의: 인천시 홍보기획관실 032-440-8302, 8304~6



하늘, 땅, 바다로 그리는 인천의 미래

<굿모닝인천> 4월호는 인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하늘, 땅, 바다로 시작합니다. 3월 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자료와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하늘, 땅, 바다로 나눠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된 백령·대청국가지질공원의 지질명소 10곳을 소개합니다. 아울러 116년째 서해의 바닷길을듬직하게 지키는 소청도 등대를 찾아, 외로움을 벗어 밤바다의 빛을 만드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번호에서는 특히 담대하게 바다로 간 젊은이를 통해 우리 시 ‘귀어, 귀촌’의 현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인천광역시’ 로고를 헬멧에 새겨 인천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는 슈퍼바이크 프로팀의 ‘초고속의 세계’도 엿보았습니다. 오래된 사진업서를 통해 개화기 인천의 모습과 우리의 풍습을 접하는 재미도 쏠쏠할 것입니다. 인천의 하늘, 땅, 바다가 품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싶다
<굿모닝인천>

듣고 싶다
‘시민 목소리’

인천미소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인터넷방송 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enews.incheon.go.kr

인천시 SNS

검색창에 **인천**을 입력하세요.

- www.facebook.com/incheon.gov
- blog.incheon.kr
- www.youtube.com/user/icncityhall
- twitter.com/incheon_gov
- story.kakao.com/ch/incheoncity
- ‘인천시 미디어’
- www.instagram.com/incheon_gov
- www.weibo.com/incheon

슬며시 피어오른 그때의 추억

오래된 동네의 학교와 보물 창고와도 같았던 학교 앞 문방구, 든든한 한 끼를 내어주던 분식집... 개학을 앞둔 학교 앞 풍경 이야기가 추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멈춰버린 시계는 아마도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시절에 머물고 싶은 간절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그날의 기억에 가슴 한구석이 따스해졌습니다.

임순임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굿모닝인천>과 함께 이 봄을

길게만 느껴졌던 겨울이 물러가고 봄의 문턱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과거 <굿모닝인천>에 소개된 인천의 봄 여행지를 따라 즐거운 나들이를 했던 기억이 선합니다. 이 봄이 가기 전에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인천의 봄나들이 명소를 소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민뿐만 아니라 인천을 찾는 모든 이들이 인천의 숨은 매력에 흠뻑 빠졌으면 합니다.

전보혜 계양구 도두리로

반려동물이 모두의 가족이 되도록

‘요즘 인천’ 코너를 통해 들여다본 반려동물 이야기가 신선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이들이 부쩍 늘어났음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그 때문인지 이제는 반려동물을 ‘가족’이라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듯합니다. 반려동물이 사랑하는 가족이 된 만큼, 성숙한 문화도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의 가족이 모두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배풍년 연수구 계림로

오래전 인천이 그림습니다

인천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 내 고향 인천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인천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어제의 우리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로는, 조금 투박하고 어설픔었던 과거의 인천, 어제의 우리네 풍경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 추억의 한 페이지도 열어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진희 부평구 마장로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또 만나요, <굿모닝인천>!

글 장하영 독자(광주시 광산구)

아이들과 긴 해외여행을 마치고 당도한 인천. 집이 있는 광주와 인천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이번이 아니면 제대로 된 여행이 어렵겠다 싶어 인천에 며칠 머물며 곳곳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공항철도 운서역에서 340번 버스를 타고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에 도착해 가벼운 산책을 즐겼습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도 방문했는데, 마침 수준 높은 전시가 열리고 있어 아이들과 흥미롭게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관람 막바지, 맞은편에 자리한 인천도시역사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정에는 없었지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잘 짜인 콘텐츠를 통해 인천이라는 도시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굿모닝인천>을 접했습니다. 표지부터 산뜻한 책자 속에는 인천에 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행정 체계 개편이라는 딱딱한 내용을 친근하게 풀어낸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인천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발전된 도시라는 것도 체감했습니다. 이후 차이나타운에서 인천의 맛과 멋을 즐길 때도 <굿모닝인천>과 함께였습니다. 매력 넘치는 이야깃거리로 가득했던 인천 여행과 <굿모닝인천>. “우리 꼭 다시 만나요!”

<굿모닝인천> 마니아를 기다립니다!

매월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코너에 소개될 시민과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과의 인연, 추억, 고마움 등 어떠한 내용이어도 좋습니다. <굿모닝인천>을 들고 찍은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시면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 gmi2024@naver.com

세
상
에
없
던

하
늘

땅

바
다

인천, 하늘 땅 바다
확 바뀔다

대한민국의 새 미래 연다

인천은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건, 인천이 한반도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큰 세상을 향해 도전했기 때문이다. 바닷길과 하늘길을 열고 세계를 힘껏 끌어안았기 때문이다.

오늘, 세상에 없던 새로운 하늘, 땅, 바다가 열린다. 인천이 항공·해운·물류 산업을 앞장서 이끌며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확장한다. 대한민국의 거대한 지도를 새로 그리며 세계로, 세계로 뻗어나간다.

글·정리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본 기사는 지난 3월 7일 인천시청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 현장의 목소리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의 ‘항공·해운·물류 발전 방안’ 정책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영상 보기



다국어 서비스

※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영어, 중국어(간체),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로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天

‘글로벌 TOP 5
항공 강국’으로
확 바뀐다

오늘, 끝을 알 수 없는 하늘은 인천의 무대다. 공항과 항만을 품은 인천의 힘을 동력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의 하늘로 높이 날아오른다.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으로 인천은 세계적 도시의 반열에 올랐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은 연 7,000만 여객이 이용하고 화물 280mt을 처리하는 동북아의 허브로 자리매김했다. 인천도 첨단 국제도시로서의 기반을 굳건히 다졌다.

“대한민국이 오늘의 번영을 이룰 수 있던 건, 인천이 한반도에 머무르지 않고, 과감하게 세계를 향해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바닷길과 하늘길을 열어 전 세계를 우리의 경제 영토로 만들었기에 기적의 역사를 쓸 수 있었습니다.” “항만과 공항을 모두 갖춘 인천의 경쟁력을 높여야 대한민국이 더 높이 도약합니다. 인천을 교두보로 항공산업과 해운산업의 대혁신을 이뤄내야 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몸집을 키운다. 제2터미널을 확장하고 활주로 등을 증설하는 인천국제공항 4단계 사업을 올 10월 완료하면, 국제여객 1억 명 이상의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이 같은 항공 인프라 확장을 토대로 2026년까지 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항공단지를 조성한다.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5,000개 이상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10년간 10조 원 규모의 생산 유발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항공 서비스 산업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다. 현재 추진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미주·유럽·중남미를 비롯해 새로운 노선을 확대하고 중복 노선은 효율화해 세계의 하늘을 더 자유롭게 누빈다. 아울러 대형 항공사가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저비용항공사(LCC)를 적극 육성한다. 이를 통해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의 질은 향상시키는 소비자 중심의 항공 시장을 조성한다.

“제물포항 개항으로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시작하고, 인천국제공항 개항으로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글로벌 국가로 발전시킨 원동력이 된 곳이 바로 인천입니다. 인천은 오늘 인구 300만을 넘고, 지역 총생산 104조를 넘어서, 대한민국 제2의 도시가 됐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인천을 키워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인천시의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결코, 비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인천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하늘로 드높이 솟아오른다. ‘우리는, 인천’, 우리가 날아오르는 하늘엔 경계가 없다.

글로벌 TOP5 항공 강국

- ① 새로운 항공 수요 창출을 위한, 항공 경제 영토 확대
 - 정부는 점진적으로 항공 자유화 협정을 확대(현재 50개국 → ’30년 70개국)하고 직항노선을 다변화.
 -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을 올 10월에 완료해 여객 1억 명 시대를 열고, 환승 노선의 연결성 개선을 지원.
- ② 항공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
 - 정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 결합 최종 승인에 대비 통합항공사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
 - 국내 LCC의 경쟁력도 강화해 항공사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유도.
- ③ 첨단기술·관광·문화와 융합하는 신항공 생태계 구축
 - 인천국제공항에 첨단복합항공단지를 ’26년 2월까지 준공하고, 입주기업에 인센티브도 지원.
 - 공항 주변에 테마파크 및 랜드마크 등 매력적인 공항 조성을 위한 인프라 개발계획도 수립.

海

‘글로벌 TOP 4
해운 강국’으로
확 바뀐다



격동의 바다에서 대한민국은 역동했다. 1883년 개항 이래 근대화, 산업화를 거쳐 동북아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인천항의 성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눈부신 발전과 궤를 같이한다. 그리고 오늘, 원대한 꿈을 안고 세계의 바다로 나아간다.

정부는 국가 수출입 물류의 핵심이자 전략 산업인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항의 항만 인프라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먼저 2027년까지 인천 신항 제1부두와 제2부두에 1조 원을 투자해 ‘스마트 항만’으로 발전시킨다. AI와 자율주행 차량을 활용해 항공, 화물을 적재 하역하고 모든 이동 과정의 자동화를 이룬다. 또한 항만의 동력원을 전기로 100% 전환해 소음, 공해, 먼지가 없는 친환경 스마트항으로 만든다. 297만 5,206㎡(90만 평) 규모의 인천항 배후 부지에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 물류와 제조업이 융·복합된 첨단산업 공간을 조성한다. 2027년까지 ‘콜드체인 특화 구역’을 만들어 프리미엄 신선식품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최고급 수출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 상거래 상품들의 수출입 통관 시간을 단축

하는 ‘전자 상거래 특화 구역’을 만들어 인천을 공항세관과 연계된 글로벌 전자 상거래 허브로 키운다.

“국가 간 항만 경쟁이 점차 심화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싱가포르 같은 주변국이 스마트 항만으로 전환하면서 세계 해운 기업들이 해외 항만으로 눈을 돌리는 상황입니다. 인천항은 우리나라 제2의 항만이자 수도권 산업의 전진기지이므로, 정부가 인천항의 스마트 항만 인프라 투자에 많이 지원해주길 바랍니다.”

- 홍승만(해운업, 토론회 참석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는, 인천 역사의 바다에서 시작한다. 인천 내항은 1974년 갑문을 완공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컨테이너 부두를 건설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힘차게 움직였다. 하지만 신항을 건설하고 항만 기능을 재배치하면서 역사의 중심에서 비켜났다. 그 바다가 새롭게 깨어났다. ‘제물포 르네상스’는 원도심이 성장하며 인천 전체가 일어서는 거대한 움직임이다. 정부는 우리 시의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해 인천항을 해양문화관광의 중심지로 만드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인천 내항 재생 사업 중 우선 시행하는 1·8부두 항만 재개발 사업은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5년에 착공하고, 나머지 부두들도 신속하게 순차 추진한다. 인천국제여객터미널의 배후 부지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카페리 및 크루즈 여객 수요에 대비하는 통합 국제여객터미널을 건설하고 해양문화관광 단지를 조성하는 ‘골든하버’ 프로젝트를 올 상반기에 착수한다. 세계적인 미항 시드니를 옮겨놓은 듯한 풍경이 인천 바닷가에 펼쳐진다.

“인천 내항의 공간과 기능을 완전히 재배치해 시민들이 언제든지 찾아 쉬고 즐기는 공간으로 만들 것입니다. 인천시의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K-컬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미디어 전시관과 문화 행사장, 호텔, 쇼핑, 관광시설까지 인천항을 해양문화관광의 새로운 핫스팟으로 만들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바다, 해양, 도시는 인천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 자원을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특히 서해 5도서는 그곳에 사는 것만 해도 애국하는 일입니다. 섬 주민들의 정주 지원 확대, 관광자원 개발, 신재생에너지 개발 같은 프로젝트들이 잘 추진되어 인천의 현안을 풀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겁니다.”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오늘, 무한한 가능성으로 넘실거리는 바다 위로 대한민국호가 닻을 올렸다. 더 큰 세상을 향해, 인천의 위대한 항해는 이미 시작됐다.

글로벌 TOP4 해운 강국

① 동북아 관문항으로서 인천항 기능 강화

- 정부는 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을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구축하고, '27년 개장을 추진.
- 배후단지를 적기 공급하고, 산업을 집적화·특성화해 인천항 배후단지를 핵심 산업 공간으로 육성.

②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로 글로벌 물류 허브 도약

- 거점 항만 스마트화로 효율적인 국가 물류체계 구축.
-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거점을 구축하고, 친환경 선박 입출항이 자유로운(Barrier-Free) 항만으로 육성.

③ 선대 확충 및 경영 안전판 마련으로 수출길 지원

-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 국적 선사의 선박량 확대를 추진.
- 국적 선사의 안정적 선대 확보를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공공 선주 역할을 확대.
- 선박 금융 접근성이 낮은 중소 선사에 대해서는 금융자원을 집중.

④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는 K-해운으로 친환경 시장 선점

- 해운 분야 국제 탈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해, 친환경 선박 신조에 금융·재정지원 추진.
-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위기대응펀드를 활용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선·화주 공동 투자를 유도해 ESG 상생 모델을 마련.
- 녹색채권을 인수해 ESG 활동을 지원.

地

교통 혁명과
물류 인프라 구축으로
확 바뀐다

모든 시작에는 길이 있다. 그 길은 인천이 열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힘차게 달려온 길 위에서 오늘, 인천 중심의 교통 시대가 온다. ‘올웨이즈 인천 all_ways_Incheon.’ 인천에서 다시 새로운 길이 시작된다.

이제, 인천에서 서울까지 단 30분이면 간다. GTX (광역급행철도) 총 6개 노선 가운데 B노선, D노선, E노선 3개가 인천에서 출발한다. 지난 3월 7일 착공한 B노선이 2030년 개통하면, 인천시청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18분, 서울역까지 24분 만에 갈 수 있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30분 출퇴근이 가능한 교통혁명이 시작된다.

영종·청라국제도시, 검단, 계양 등 신도시의 광역 교통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서울지하철 5호선과 7호선의 청라국제도시 연장, 9호선 공항철도 직결과 같은 도시철도 연장과 광역철도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교통망에 날개를 단다. 인천에서 전국 어디로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고속철도 네트워크도 확충한다. 인천은 미래의 길도 탄탄대로다.

아울러 수인선과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해, 인천과 부산, 인천과 목포 간의 이동 시간을 2시간대로 단축한다. 또 2028년 월곶과 판교까지 KTX 노선을

완공해 인천과 강릉을 하나로 잇는다. 이제, 서해에서 아침 햇살을 맞이하고 동해에서 저녁노을을 걷어 들이며 하루 여행을 즐긴다.

“영종국제도시에서 서울까지 2시간 반 이상을 소요하며 출퇴근합니다. 다행히 GTX B·D·E 노선, 인천발 KTX 광역교통 대책의 신속한 추진이 진행되어 기쁩니다. GTX D 노선의 종착역은 인천국 제공함입니다. 인천의 발전은 대한민국의 발전이고, 대한민국의 발전은 곧 국민의 행복입니다. 인천의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정준하(영종국제도시 주민, 토론회 참석자)

경인선 철도와 경인고속도로 지하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와 고속도로가 새로운 미래의 길을 연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필요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7년에 착공한다. 경인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2025년까지 전국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2026년 지하화 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 철도와 고속도로가 사라진 상부 공간은 주거, 상업, 문화, 환경이 어우러진 입체 수직 공간으로 새 숨을 틔운다. 경제 발전으로 단절됐던 원도심이 다시 하나로 이어진다.

“낙후된 인천의 원도심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특히 경인철도는 동구와 중구를 단절하며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곧 중구와 동구가 합쳐서 제물포구로 출범할 텐데, 두 지역이 편히 왕래하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이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열악한 주거 환경과 침체된 상권 문제 등을 해결해주면 좋겠습니다.”

- 강덕우(인천개항장 연구소, 토론회 참석자)

“인천이 고속 성장 발전하는 과정에서 원도심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불균형 성장이 현안 과제입니다.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경인철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원도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시간이 멈춘 원도심은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재생 버튼을 누른다. 정부는 2027년까지 25개 지구, 2조 4,00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한다. 인천 구월, 연수, 계산, 만수, 부평을 비롯해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 계획도시들은

주민들이 원하면 안전진단 없이 신속하게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바다를 메워 만든 새 땅, 상상을 눈앞의 현실로 일궈낸 신도시, 다시 인천을 움직이는 동력이 될 원도심, 무엇보다 ‘인천의 꿈’을 안고 ‘대한민국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는 1,000만 인천의 힘. 내일, 인천의 하늘 땅 바다가 확 바뀐다.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인천의 하늘 땅 바다로 완성된다.

66

인천의 하늘, 바다, 땅을 확실히 바꿔놓겠다’는 말씀과 ‘인천의 경쟁력 강화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말씀에 가슴이 미어지는 공감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일은 인천의 경쟁력을 통해서 이뤄집니다. 글로벌 도시에 걸맞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인천시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글로벌 도시의 역할을 확실히 할 것입니다.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99

국민이 행복한 물류산업

①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인프라 구축

- 정부는 물류기업의 인프라 확충 등을 적극 지원.
- 노후화된 내륙 물류거지는 현대화해 기능을 강화.
- 항만 배후단지를 공급(2030년까지 3,100만㎡)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항만형 자유무역지역도 확대 지정.
-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 거점에는 국제물류특구 조성을 추진.

② 대한민국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 제공

- 2030년까지 누구나, 어디에서나 ‘전국 24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
- 도서·산간처럼 택배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지역을 물류취약지역(2024. 6)으로 지정하고 관리.

③ 청년이 일하고 싶은, 미래 물류산업 육성

- 정부는 미래 물류 모빌리티 산업을 적극 육성.
- ‘스마트 물류’ 분야의 스타트업 투자 지원 등 청년물류기업 성장 지원.

10억년의 기억 10억년의 기록

유구한 역사를 말할 때 흔히 ‘반만년 역사’라는 표현을 쓴다. ‘1만 년’이라는 시간 단위에 ‘아득히 오랜 세월’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나온 표현일 터이다. 그 1만 년이 10만 번 거듭된 시간이 10억 년이다. 지구 밖에선 새로 탄생한 별이나 죽음을 맞이한 별이 있었을 것이고, 지구는 본래의 모습을 크게 바꾸었을 시간이다. 산이 솟아오르고 바다가 육지가 되던 태고의 시간. 스스로 10억 년의 기억을 기록으로 새긴 곳이 있다. 살아 있는 지질박물관,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이다.

글 임성훈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세
계
지
질
공
원
으
로

백
령
·
대
청
·
소
청
도

국
가
지
질
공
원
에
서

땅과 바다, 그리고 인간을 비롯한 수많은 생물…。 지구에는 많은 것이 공존한다. 지질공원(Geopark)은 지구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동식물의 터전이 되는 지질과 경관을 보존하고자 만든 제도다.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이 대상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자연 보호를 목적으로 탄생한 것은 아니다. 지질, 자연, 문화, 역사 등 여러 요소를 연계해 교육과 관광에 활용하는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리하는 곳이 지질공원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질공원에 찾아와 배우고 체험하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 마련이다. 무엇보다 주민들 사이에서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져 주민 스스로 보존에 힘쓰게 된다. 지질공원은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지향한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상향식(bottom-up) 제도라는 점이 지질공원의 특징이다.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등 백령권 섬은 지난 2019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됐다. 국가지질공원이 세계지질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 지침’에 따라 먼저 세계지질공원 후보지가 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최근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가는 길에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2023년 12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48개국 19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청송, 무등산권, 한탄강권, 전북 서해안권 등 5곳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운영 중이다.

우리 시는 오는 6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의향서 제출에 이어 11월 본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유네스코의 서면 및 현장 평가를 거쳐, 2026년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의 최종 승인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받는다는데 계획이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해서는 국제 가치 규명, 기반 시설 구축, 지오 협력 체계 등 101가지 인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경우 국가지질공원(10곳)보다 10곳 많은 20곳의 지질 명소를 확보해야 하는데 우리 시는 현재 다양한 지질 명소 후보지를 대상으로 막판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백령권 섬은 세계적으로 지질학적·생태적·역사적·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지질 명소가 많아 세계지질공원 인증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앞으로 들어설 백령공항과의 시너지 효과도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대한 긍정적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백령권 섬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라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제 가치 브랜드를 확보해 세계 관광 명소로 도약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본다.



백령도

白翎島



< 01

두무진(명승 제8호)

조선 제15대 왕 광해군이 ‘높은 신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칭송한 곳. 마치 장군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는 것 같다고 해서 두무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아름답고 기묘한 암석들이 펼쳐져 있어 서해의 해금강이라고도 불린다. 약 10억 년 전에 퇴적된 모래가 지하에서 열과 압력으로 굳어져 퇴적암인 **사암**이 되었다가, 더 깊은 지하에서 고온·고압에 의해 변성암인 **규암**으로 변했지만, 물결무늬, 사층리 등 퇴적 당시의 퇴적 구조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10억 년 전의 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 경이로운 지역이다.

***사암** 모래 알갱이들이 쌓인 후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으로 퇴적암의 일종
***규암** 사암이 높은 열과 압력으로 구워지는 과정(변성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암석



< 02

사곶해변(천연기념물 제391호)

사곶해변은 아주 고운 모래 입자가 쌓여 이루어진 해안이다. 썰물 때면 길이 2km, 폭 200m의 백사장이 나타난다. 이곳의 모래 입자는 매우 작고 크기가 균일하기 때문에 입자 사이의 틈 역시 매우 좁다. 이로 인해 사곶해변은 단단한 모래층이 되었고, 그 단단함이 콘크리트 바닥과도 같아 한국전쟁 당시 비상 활주로로 이용되기도 했다. 지금도 공항식별부호(K-53, RKSE)가 있는 천연 비행장이다.

↗ 03

콩돌해안(천연기념물 제392호)

규암 등 백령도를 구성하는 암석들이 **풍화와 침식작용**으로 부서진 후 파도와 바람은 쉽 없이 그 조각들을 굴렸다. 조각들은 서로 부대끼다 둥글게 변해 ‘콩돌’이 됐다. 이들 오색영롱한 콩돌들이 무수히 모여 아름답고 특이한 해안 경관을 연출하는 곳이 콩돌해안이다. 간혹 파도가 강한 날이나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는 콩돌들이 바다로 밀려가 콩돌층 아래 갯벌이 드러난다. 기상이 안정되면 갯벌은 다시 콩돌로 채워진다.

***풍화와 침식** 햇빛, 공기, 물, 생물 등에 의해 물질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풍화는 제자리에서 진행되는 것을 말하고 침식은 물, 얼음, 눈, 바람, 중력 등에 의해 물질이 이동을 하는 것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 04

진촌리 현무암(천연기념물 제393호)

진촌리 현무암은 지각 하부에 있던 뜨거운 맨틀 물질이 녹아서 만들어진 고철질 마그마(철과 마그네슘 함량이 높고 규소 함량이 낮은 마그마)가 지각을 뚫고 올라와 지표로 분출한 후 식어서 만들어진 검은색의 암석이다. 진촌리 현무암에는 황록색의 **감람암**이 섞여 있다. 지하 약 5km에 있었던 **감람암**은 마그마가 지상으로 상승할 때 맨틀에서 뜬 올라온 것이다. 현재 인류의 기술로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지구 내부 물질과 변화를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감람암** 지구 내부의 맨틀 물질을 이루는 암석으로서 감람석과 휘석이라는 광물로 구성된다. 감람석은 마그네슘 함량이 높아서 녹색을 보이며, 지표면에서 풍화가 되면 노란색을 띤다. 감람석 중 투명도가 높고 색이 고운 것은 페리도트Peridot라는 보석으로 사용된다.





↑ 05

용틀임바위(천연기념물 제507호)
끊임없이 몰아치는 파도와 바닷바람을 이겨낸 해안절벽의 극히 일부가 살아남아 마치 몸을 뒤틀며 승천하는 용과 같은 형상을 보여준다. 용틀임바위가 보이는 절벽의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천연기념물 제507호인 남포리***습곡**이 나타난다. 이 남포리 습곡은 지층이 구부러지거나(습곡), 끊어진 곳(단층)이 있는데, 이 현상은 강한 힘이 이 지층에 작용해 지층이 변형된 것이다.

***습곡** 지층이 지하에서 변형 작용에 의해 그 원래의 모습이 바뀐 것을 말한다. 평평하던 지층이 압력을 받으면 휘어지는데 이러한 것을 습곡이라고 한다.

대
청
도 大·靑·島



→ 06

검은낭
대청도 답동 종합운동장 부터 동쪽의 해안을 따라 걷는 약 1.5km의 길인 검은낭은 ‘검은 낭떠러지’란 뜻으로 현지 주민들이 사용하던 말이다. 이곳은 다른 곳과 다르게 어두운 암석들이 많이 분포하는데, 백령도의 진촌리 현무암과는 다른 퇴적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퇴적암이 검은색을 띠는 이유는 역암이나 사암이 아닌 이암으로 구성되며, 이 이암은 어두운 색을 띠는 광물인 흑운모나 녹니석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검은낭을 따라 설치된 해안 산책로는 대청도의 여유롭고 편안한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07

서풍받이

해발고도 80여m에 이르는 서풍받이는 하얀 규암으로만 이루어진 웅장한 수직절벽이다. 이곳은 바람이 매우 강해 식생이 그 표면에서 잘 자라지 못한 탓에 암석이 그대로 노출되어 특이한 경관을 이룬다. 기름아가리는 기름을 얻을 수 있는 식물이 많이 자라는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서풍받이에서 바라보면 지층의 경사가 변화하는 것이 관찰되는 지질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장소이다.

***지층의 경사** 퇴적물은 수중에서 보통 수평으로 쌓인다. 이를 수평 경사 혹은 경사도 0이라고 한다. 퇴적 후 지각 변동에 의해 지층은 누워 있는 각도가 변하게 된다. 지층이 수직으로 서면 지층의 경사각은 90도가 된다.



08

옥죽동 해안사구

바닷가에서 바람에 날리는 모래로 인해 모래 언덕이 형성된 곳이다. 우리나라 사구 중 규모가 매우 큰 편이어서 모래사막을 체험할 수 있다. 모래 언덕의 형성 과정과 사구 생물의 특성을 관찰할 수 있다.

***사구** 바람에 의해 모래가 이동하면서 쌓여 생긴 언덕. 모래가 많은 사막이나 넓은 바닷가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다.

09

농여해변과 미아해변

농여해변과 미아해변은 썰물 때 이어지는 해변으로 광활한 백사장과 드넓은 바다의 풍경을 보며 산책하기 좋은 곳이다. 농여해변에 우뚝 솟은 암석은 얇은 지층이 다양한 색으로 반복되어 마치 고목나무의 나이테처럼 보인다. 지층이 강한 변형 작용을 받아서 수직으로 선 후 풍화와 침식으로 현재의 모양이 되었다. 나이트바위 앞으로 펼쳐진 광활한 광장은 모래톱이 쌓이는 곳으로 풀등이라고 한다. 미아해변에는 잔잔한 물결과 바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물결무늬의 백사장이 펼쳐지는데, 이 백사장에 있는 거대한 절벽의 표면에 똑같은 물결무늬가 새겨져 있다. 이 물결무늬를 연흔(漣痕)이라고 하며, 10억 년 전 대청도가 만들어질 때 생성된 물결무늬가 그대로 보존되어 10억 년 전이나 현재나 똑같은 자연현상이 반복됨을 보여준다.

***풀등** 보통 큰 하천의 하구에 모래톱이 길게 쌓이는 것을 등이라고 하는데, 낙동강 하구의 등이 대표적이다, 수면 위로 노출 기간이 길어지면 풀이 나는 경우도 있어 ‘풀등’이라고 한다.

***연흔** 파도, 유수, 바람에 의해 만들어진 줄무늬 모양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퇴적 구조. 그 당시 퇴적 환경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다.

소청도 小・靑・島



10

분바위와 월띠(천연기념물 제508호)

백색의 대리암으로 이루어진 ‘분바위’는 바위가 분칠한 것처럼 하얗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달빛이 비치는 밤바다에서 바라보면 소청도를 하얀 띠가 둘러싸고 있다 하여 ‘월띠’라고도 불리면서 등대 역할을 했다. 과거 따뜻한 바다에 번식한 산호 같은 생물들이 쌓여 만들어진 석회암이 고온·고압의 변성작용으로 인해 만들어진 대리암이다. 분바위의 특정 부분에서는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화석이 발견되는데, 남한에서 가장 오래된 화석으로 알려져 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원시지구에서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공급한 남조류(시아노박테리아)의 화석이다. 주민들은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를 ‘굴딱지 돌’이라고 부른다.



전문가에게 듣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 선정의 의미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은
지질학의 메카”

글 임성훈 본지 편집장 | 사진 박재현 포토디렉터

김기룡 이사장 1984년 서울대 자연과학 대학원 지질학과 졸업 후 인천여고 지구 과학 교사로 첫 발령을 받으면서 인천과 인연을 맺었다. 이어 인천과학고 재직 당시 학생들과 함께 카이스트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인천 섬의 지질학적 가치에 매료되었고 이후 인천 섬 연구에 파고들었다. 37년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직한 후에는 인천 168개의 섬들이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자연유산을 발굴, 연구, 홍보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백령권 섬들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선정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감람암포획현무암.’ 최근 인천시 중구청 맞은편 2층에 자리한 (사)인천섬유산연구소를 찾았을 때 연구소의 김기룡 이사장이 가장 먼저 보여준 암석이다. 돌그릇에 황록색의 보석 알갱이들이 담겨 있는 듯한 모습이 인상적이다. 풀어 쓰면 ‘감람암을 품은(포획한) 현무암’이라는 뜻인데 김 이사장의 설명을 듣고 나면 저절로 돌덩이에 손이 간다. 지구의 속살을 느껴보기 위해….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시대이지만 아직 지구 내부의 맨틀까지는 직접 시추하지 못합니다. 이 암석은 상부 맨틀 부근의 현무암질 마그마가 지각을 뚫고 나올 때 맨틀의 일부분인 감람암을 포획해 함께 분출한 것이 급속히 냉각되어 형성된 것입니다. 지구 내부 물질의 성분과 특성 연구에 단초를 제공하는 희귀 암석이지요.”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 제393호로 지정된 이 암석은 백령도 진촌리에서 볼 수 있다. 이 암석이 발견된 곳이 몇 안 되는데, 그중 백령도 암석이 가장 크고 선명하다고 한다. 사실 이 암석은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의 지질학적 가치를 보여주는 방대한 사례 중 한 가지다. 이 암석 외에도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에는 10억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지질 유산이 즐비하다.

지질학자의 관점에서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은 어떤 곳일까.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의 지질에는 중원생대, 신원생대 퇴적암의 퇴적 특성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당시 중국, 북한 등의 퇴적환경을 상호 비교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요. 또 동아시아 열곡대에서 생성된 고철질 암석이 나타나 남한, 북한 및 중국의 고지리적 특성을 복원하는 데 유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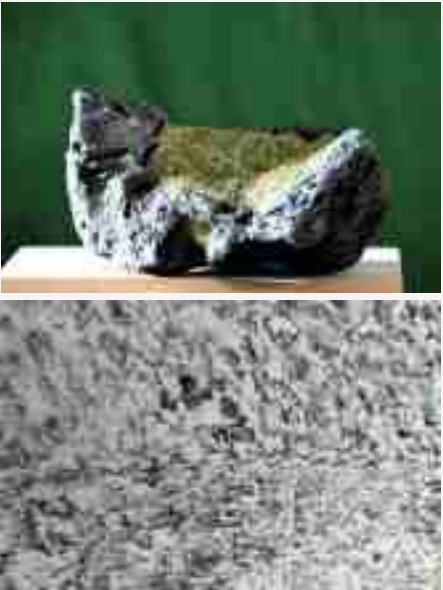
최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된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의 지질학적 가치를 묻자 마치 태곳적부터 축적된 듯한 답변이 이어진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10억 년 전 한반도 북부 지역의 지구상 위치를 특정할 수 있고, 스트로마톨라이트를 생성한 남조류 비교를 통해 국제적인 층서대비가 가능한 곳이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이다. 한반도에서 일어난 주요 화산활동의 근원과 맨틀의 기원을 규명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지질 연구자들이 반드시 둘러봐야 할 ‘지질학의 메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천의 섬 중 백령권 섬만 지질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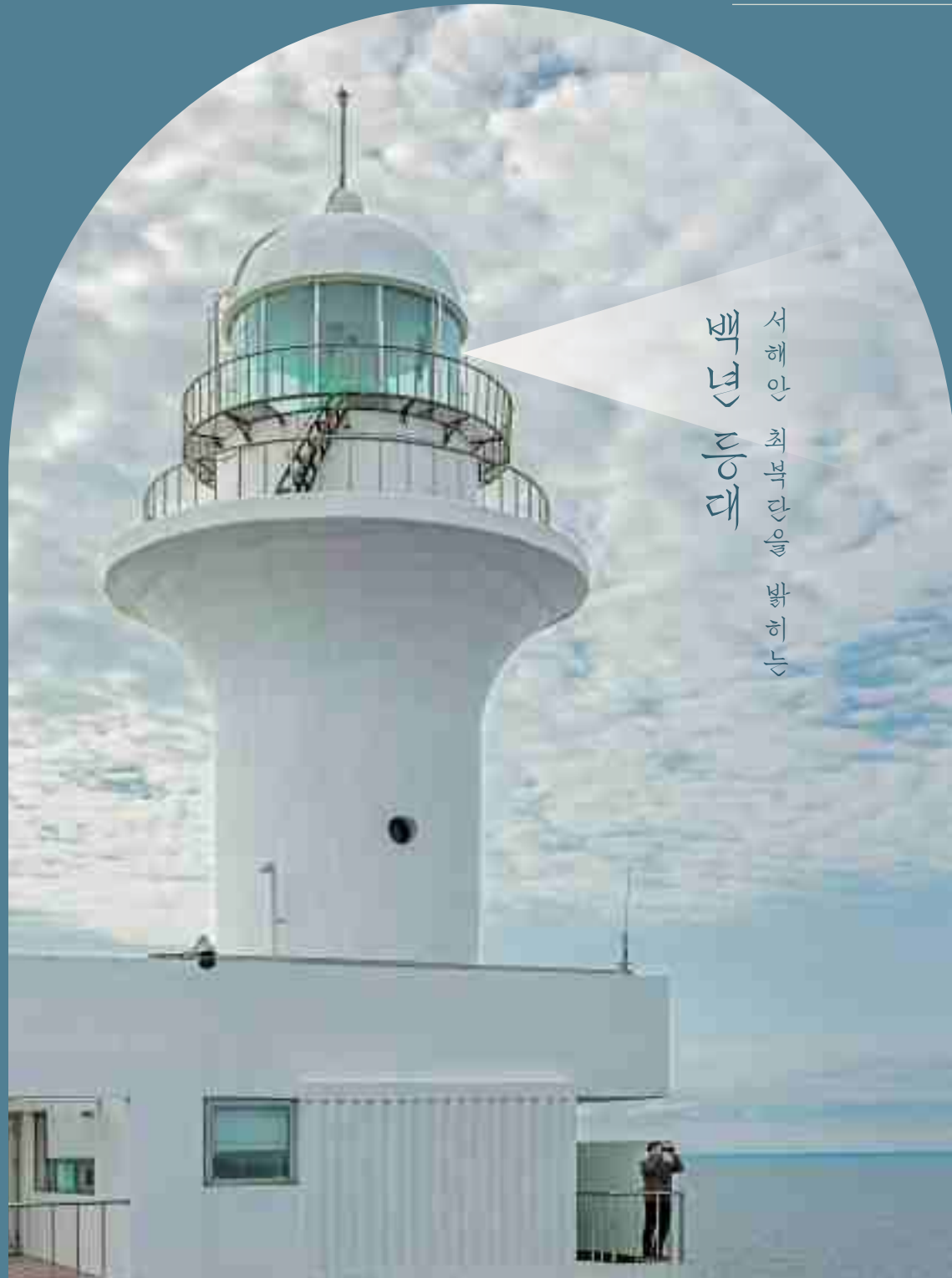
“인천에는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외에도 지질학적으로 주목해야 할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령 암석(26억 1,000만 년)이 있는 대이작도, 중원생대 퇴적암이 변성되어 생긴 편암이 있는 장봉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해식와가 있는 소굴업도 등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도 손색이 없는 지질명소들이 인천 섬에는 무궁무진해요.”

끝으로 김 이사장은 인천 섬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섬이 보유한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인천 168개 섬 중 150개 섬에 발자국을 남긴 끝에 도달한 결론이어서인지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다.

66
이제는 인천 섬이 간직하고 있는 유산의 특징과 접근성을 고려한 차별성 있는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백령권 섬은 지질공원, 연평권 섬은 평화체험공원,
덕적지월권 섬은 섬섬옥수해상공원,
영흥·중구·북도권 섬은 섬·어촌문화체험공원,
강화권 섬은 역사체험공원 등으로요.
99



감람암포획현무암(위)
스트로마톨라이트 타본(아래)



서해안 최북단을 밝히는
백년 등대

인천항에서 북서쪽으로 165km, 뱃길로 꼬박 네 시간을 달려야 다다른 멀고도 아득한 섬. 서해5도에 속한 소청도는 백년 등대를 품은 푸른 섬이다. 1908년 우리나라에서 두번째로 불을 밝힌 등대가 116년째 서해의 바닷길을 등직하게 지키고 있다. 40초 주기로,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섬광은 촛불 15만 개를 동시에 켜 것과 같은 밝기다. 그 덕에 섬은 더욱 빛이 난다. 그리고 그 곁에는 늘 등대지기가 있었다.

글 최은정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유승현 포토디렉터

등대 이야기

소청도 등대는 1908년 1월 1일 처음 불을 켜 이래, 줄기차게 빛을 쏘아 올리며 어두운 바다를 홀로 지켜왔다. 인천과 중국을 잇는 길목에 위치해, 멀리 중국 산둥반도와 다렌 지방을 오가는 선박들에게도 길을 안내한다.



등대의 심장 등명기.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섬광은 촛불 15만 개를 동시에 켜 것과 같은 밝기다.

소청도의 백년 등대

오롯이 파도 소리만 들리는 작은 섬, 소청도. 등대는 섬의 서쪽 끝자락에 고고하게 서 있다. 뱃길로 꼬박 네 시간을 달려가고도, 해발 83m를 또 올라야 만날 수 있다.

마중 나온 지프에 몸을 싣고 굽이굽이 섬 길을 달린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소금기 어린 공기에 가슴이 일렁인다. 10분쯤 달렸을까. 봄 햇살이 내려앉아 눈부시게 빛나는 흰색 건물이 ‘소청도항로표지관리소’란 간판을 걸고 물사람을 반긴다. 항로표지관리소, 등대의 행정 명칭이다. 이곳을 지키는 사람도 1988년 이후 ‘항로표지관리원’이란 새 이름을 얻었지만 여전히 ‘등대지기’로 더 많이 불린다.

소청도 등대는 1908년 1월 1일 처음 불을 켜 이래, 줄기차게 빛을 쏘아 올리며 어두운 바다를 홀로 지켜왔다. 인천과 중국을 잇는 길목에 위치해, 멀리 중국 산둥반도와 다렌 지방을 오가는 선박들에게도 길을 안내한다.

등대에서는 빛만 쏘는 게 아니다. 광파, 전파, 음파 등 3가지를 허공에 쏜다. 안개가 짙게 끼 빛이 무용지물이 될 때는 에어사이렌을 작동한다. ‘부웅~’ 40초마다 한 번씩 울리는 사이렌은 3마일 밖의 해상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소리다. 한 세기 동안 서해안 최전방을 지킨 등대는 오늘도 바다를 굽어보며 묵묵히 제 할 일을 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먼 곳까지.

등대를 지키는 삶

물사람들에겐 그저 일상의 일부인 가족조차 등대지기들에게는 그리움의 대상이다.
빛을 향해 귀향하는 선박을 가장 앞서 맞이하고, 먼바다로 나아가는 배를 빛으로 전송하는 등대지기.
그들은 외로움을 빚어 밤바다의 빛을 만드는 사람이다.



인천 앞바다에서 27년째 등댓불을 밝히고 있는 김기수 소장



소청도의 아름다운 풍광에
고단함도 잊는다는 권영일 주무관

늘 곁에, 항로표지관리원

등대 근무는 1일 2교대이다. 언뜻 등댓불만 켜면 할 일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딸린 일이 적지 않다. 등대의 불빛이 잘 보이도록 등명기와 반사경을 닦고 축전지와 발전기 등 각종 동력기관들을 기름칠하고 조이며 늘 점검한다. 뿐만 아니라 풍속, 기온, 풍향, 오늘 강수량과 어제 강수량 등 기상 실황을 하루에 다섯 번 인천기상대에 통보한다.
소청도 등대엔 인천 앞바다에서 27년째 등댓불을 밝히고 있는 김기수(52) 소장, 권영일(52), 최철수(46) 항로표지관리원이 살고 있다. 이들은 가족과 떨어져 등대에 딸린 관사에서 기거한다. 가족 상봉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휴가를 이용해 육지로 건너가 며칠 묵고 온다. “빨리 나가서 보고 싶죠. 가족들.” 물사람들에겐 그저 일상의 일부인 가족조차 등대지기들에게는 그리움의 대상이다.
빛을 향해 귀향하는 선박을 가장 앞서 맞이하고, 먼바다로 나아가는 배를 빛으로 전송하는 등대지기. 그들은 외로움을 빚어 밤바다의 빛을 만드는 사람이다.

희망의 빛

김 소장은 그가 구한 생명을 떠올리면, 고독한 등대지기의 삶이 견딜 만하다. 지난해에 부도의 등대를 지킬 때 모터가 고장 난 낚싯배가 칠흑 어둠 속을 뚫고 등댓불을 향해 노를 저어 와 가까스로 깜깜한 밤을 건너왔다. 새벽 7시 하얗게 질린 얼굴로 등대섬으로 올라온 그에게 따뜻한 옷과 음식을 내어줬다. 연신 고맙다고 인사하는 그를 보며 가슴속에 사명감이 들이닥쳤다.
그 날을 회상하는 김 소장의 시선이 아득히 먼 북녘을 향한다. 어느새, 온 바다를 뒤덮었던 안개꽃이 물러가고 햇살이 비추어든다. 질푸른 바다 건너 북한의 웅진반도까지 시야가 환하게 열린다. “하늘이 축복을 내렸네요. 3~4월엔 거의 매일 해무가 꺼서 이렇게 맑은 날 보기 어려워요.”
하늘은 변화무쌍하다. 특히 이맘때부터 여름까지는 거의 매일 해무와 비, 태풍과 싸워야 한다. 맑은 날에도 해무가 끼면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다. 등대가 그 길을 열어줘야 한다. 그래서 등대라 불리는 ‘항로표지관리소’ 안은 늘 긴장감이 흐른다.

등대는 오늘도 온몸으로 바닷바람 버티며 그 자리에 서 있다. 해가 지면 불을 밝혀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친구가 되어준다. 그 곁에서 항로표지관리원들도 묵묵히 바다를 지킨다. 작은 어선 한 척이 흰 물꽃을 일으키며 어딘가로 달려가고 있다. 저 배도 거칠고 험한 바다를 만나면 등대 불빛을 벗삼아 집으로 돌아가리라.

등대는 오늘도 온몸으로 바닷바람 버티며 그 자리에 서 있다.
해가 지면 불을 밝혀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친구가 되어준다.
그 곁에서 항로표지관리원들도 묵묵히 바다를 지킨다.

등대 스탬프 투어 소청도 등대는 해양수산부의 ‘등대 스탬프 투어(등대 도장찍기 여행)’의 4개 코스 중 ‘아름다운 등대 코스’에 꼽힐 정도로 환상적인 풍광을 자랑한다. 우리나라 서해 최북단의 작은 섬, 해발 83m 고지에 고고하게 서 있는 백년 등대를 찾는 발길이 잦다. 등대 스탬프 투어에 참여하려면, 스마트폰에서 ‘스탬프투어 앱’을 내려받아 등대를 방문해 인증을 하면 된다. 코스 및 기념품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대섬 가는 길 소청도는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여객선을 탄다. 항로 확인 및 예매는 ‘가보고 싶은 섬’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영종도의 청년 선장 김원중, 항해를 마치고

인천은 깊다. 그 역사는 인천 사람들이 살아낸 시간이다. 인천 곳곳에 깃든 저마다의 삶과 기억, 숨은 이야기를 찾아 기록한다. ‘인천에서 인천으로’는 잊고 있던 인천의 삶, 시간, 공간 그리고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모두가 도시로만 향하는 시대, 인생을 걸고 바다로 뛰어든 한 청년이 있다. 직선의 도로 위를 앞만 보고 달리는 대신, 바다를 누비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기로 했다. 스물여덟의 바다 사나이 김원중, 그는 오늘도 햇살보다 먼저 새벽을 깨우며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간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임학현 포토디렉터

담
대
하
게
거
침
없
이

바
다
로
거
침
없
이
뛰
어
들
었
다



취재 영상 보기

거센 파도,
처음 만난 바다

극한의 일상,
담대하게 살다

파도를 헤치며 귀항하는 보성호.
이날 한낮부터 풍랑 주의보가 내렸다.

· 벌써 네 시간째 배를 기다리고 있다. 오전 6시경이면 귀항한다던 배는 돌아올 줄 모른다. 중구 영종도 왕산항, 이른 봄의 아침 바닷가는 매물차다. 오늘은 바람이 더 세차게 분다. 이윽고 출렁이는 수평선 너머로 고기잡이배가 보인다. 한낮부터 서해 전역에 풍랑 주의보가 내린다고 했다. 다른 배들은 새벽빛이 밝아오기 전부터 물으로 달려와 닻을 내린 터였다. 7톤 급 고기잡이배 보성호는 파도가 달려드는 바다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끝까지 하루치 결실의 무게를 더했다.

이 겁 없고 거침없는 배의 선장은 스물여덟 청년, 김원중이다. 6년 전 심연의 바다로 거침없이 뛰어들었다. 연안부두에 있는 직업소개소에서 통발어선을 소개받고는 무턱대고 배에 올라탔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 높다란 파도, 쏟아지는 비…. 덕적도 인근 바다라고 했다. 세상에 그런 섬이 있는 줄도 몰랐다. 먼바다 한복판에서 사흘간 쉬지 않고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를 반복했다. 그러다 물으로 가 하루 쉬고, 다시 바다에서 사흘을 견뎌 냈다. 바다로 나갈 때마다 뱃일을 함께하던 사람들 얼굴이 바뀌었다. 그는 두 달을 버텨 냈다. ‘힘들어도 돈이 되겠다.’ 싶어, 다니던 대학까지 그만두었다. 소래포구로 가 새우잡이 배에 올랐다. 때는 혹독한 추위로 얼어붙은 한겨울이었다.

· 바다는 그 삶의 최전선이다. 바다와 막 맞닿아 살아가던 시절엔 종일 쉬지 않고 몸을 움직인 끝에야 겨우 두어 시간 눈 붙일 수 있었다. 엔진 소리 가득한 선내에 몸을 기대노라면 일할 때는 몰랐던 하루의 피로가 몰려들었다. 하나 몸을 부리는 만큼 돈을 벌 수 있지 않는가, 육체의 고단함쯤이야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다. “누구나 저마다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지 않느냐. 나도 그럴 뿐이다.”라고 그가 덤덤히 말한다. 배를 타기 전, 일이라곤 그 흔한 아르바이트조차 해본 적 없다. 세상 밖에서 살아가는 일이 원래 이리 고되고 힘든 줄로 알았다. 어쩌면 그래서 버틸 수 있었다.



도시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살아가는, 바다 사나이(왼쪽)
그의 배 보성호 몸체엔 파도를 헤친 흔적이 역력하다.

“나보다 훨씬 나이 든 선원들도 파고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나 역시 ‘그냥’ ‘당연하게’ 내 할 일을 했을 뿐이지요. 다들 그러고 살지 않아요. 힘들 것도 없어요.” 그의 미소가 담담히 떠오르다 모자 그늘 아래 숨는다.

손 안엔 담을 수 없는,
큰 세상

김 선장과 함께 어업을 마친 베트남 선원들(위)
땀과 바꾼, 하루치 결실의 무게



· 도시에 살았다면 한참 잠에 빠져 있을 시간, 그는 검은 바다를 가로질러 은빛 희망을 낚는다. 바다는 주인이 따로 없는 저금통장이다. 제 몸만 부지런히 부리면 돈뭉치를 척척 안겨 준다.
“처음엔 ‘세상에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있나.’라고 생각했어요. 젓새우가 하루에 200~300상자씩 잡히는데, 하루에 1억 원도 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한 100억 원 벌면, 고기 잡는 일을 그만두어야겠다.’라고 생각했지요. 하하.”

서울 한복판에서 태어나 생의 대부분을 살아온 그다. 하지만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꿈꾸며 가속도 내며 사는 삶을 거부했다. 한 달 치 봉급에 하릴없이 얹매이는 직장인이 아닌 자연인으로 살아가기를 택했다.
쉬운 길은 아니었다. 바닷일은 녹록지 않고, 도시 생활과의 간극을 극복하기도 어려웠다. 언젠가 바다에 묶여 지독한 감기에 시달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소중한 사람들 얼굴이 떠올랐다. 누구나 매일 저녁이면 돌아가는 집으로, 그는 갈 수 없었다. 친구들의 SNS 속 화려하고 자유로운 세상은 낯설고 멀기만 했다. ‘왜 나는 꿈쩍없이 배 안에 갇혀 살아야 하나?’, ‘나만 불행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남들과 다른 삶을 사는 일은 때로 단단한 그를 무너뜨렸다. 그래도 곳곳이 일어났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에요. 되돌아갈 수는 없어요. 어떤 일이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가 어렵지, 그 이후에는 쉬운 법이에요. 나를 믿고 계속 나아가야죠.”

그렇게
바닷사람이
되어 간다

키를 잡고 더 큰 세상을 누빔,
김 선장의 귀한 손



인천 바다, ‘귀어, 풍어기’로

“철저히 준비하고, 경험을 쌓아라.” 도시를 벗어나 바다에서 살아가길 꿈꾸는 사람들에게, 청년 선장 김원중이 먼저 들려주고 싶은 말이다. “우선 배를 타세요. 어업을 경험하고 나서야 작은 배라도 부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귀어·귀촌 과정을 교육받아야 합니다.” 6년 전, 인천으로 귀어한 김원중 씨는 지난해 ‘귀어·귀촌 박람회’에서 ‘우수 귀어·귀촌인상’을 수상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귀어 학교’에서 자신의 어업 경험과 노하우도 전하고 있다. 우리 시는 귀어 학교와 귀어·귀촌 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도시인의 발걸음을 어촌으로 이끌고 있다. 귀어 학교의 교육비는 무료이며, 수료생에게는 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청년 어촌 정착 지원 등의 우선 혜택이 주어진다. 수업은 3주 과정으로 올해 총 4차례 운영한다. 또 지난 3월 4일 문을 연 ‘귀어·귀촌 지원센터’는 다양한 도시민 어촌 유치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바닷가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문의 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62



바다와 맞닿아 살아가는 아들과 어머니

· “옹이투성이의 새카만 소나무 아시죠? 세월의 온갖 풍상에 거칠고 거칠어지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 아들 손이 언제부터가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평생 고운 손으로 살 줄 알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처음 바다로 나간다고 할 때, 어머니 이윤희(54)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금도 이른 새벽, 집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곤 한다. 그런 어머니가 마음 쓰여 아들은 슬그머니 손을 감춘다.

영종도 바닷가 마을의 스물여덟 막내 선장은, 가족에게도 동네 어르신들에게도 애뜻하고 자랑스러운 존재다.
“보배여, 보배.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 없어. 요새 젊은 사람 중에 누가 바닷일을 하려고 해. 이런 사람은 나라에서 많이 도와줘야 해.” 키를 잡고 충남 태안에서부터 평생 서해를 누벼온 조태진(69) 선장은 자신과 같은 길을 걷는 이웃 청년이 기특하다. 행여라도 못 들을까, 멀어지는 그를 향해 조 선장이 크게 소리친다.
“그래도 너무 위험한 데까지 나가지 말아라이~. 파도가 무서운 줄도 알아야 하는 법이다.”
하나 몰아치는 파도와 폭우에도 기어이 배를 타야 하는 것이 바닷사람의 운명이다. 생선 비린내 자욱한 삶 속에서 육체의 고통 따위는 잊은 채, 거칠고 견잡을 수 없는 세계에 정면으로 맞서 살아간다. 정해진 길은 없다.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선장 김원중은 오늘도 심호흡 깊게 하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간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시속
300km의
세계,

슈퍼바이크

‘부~르~릉... 빠~양...’ 굉음과 동시에 ‘제로백 2초’에 도달하는 사람들. 바이크로 정지 상태에서 2초 만에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그야말로 ‘초고속의 세계’를 달리는 이들이 있다. 이름하여 ‘슈퍼바이크 프로팀’. 슈퍼바이크 사람들은 정신적·육체적 모든 감각을 극한으로 동원해 제로백 2초대의 속도에 도전하면서 오늘도 서킷^{Circuit}(경주장)을 달린다.

글 최은정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제공 에라스



1 — 이정균 팀 에라스 단장과 팀원들
2 — ‘인천’을 달고 질주하는 팀 에라스의 헬멧

인천 연고팀 ‘에라스’, 헬멧에 인천광역시 달고 질주

‘시야가 좁아지면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시각적·공간적 세계에 들어선다’, ‘주변이 물결치듯 순식간에 사라져 간다’. ‘강렬한 몰입감과 짜릿함’. 시속 300km의 세계를 감각하는 언어다.

가슴에 인천을 품고 ‘시속 300km’를 향해 달리는 사람들이 인천에도 있다. 인천의 슈퍼바이크 프로팀의 이름은 ‘에라스^{ERAS}’. 30여 명의 남녀로 구성된 인천팀은 2012년 동호회로 출발해 2018년부터 프로팀으로 본격 발전했고, 지금은 전국 서킷레이스 대회에 연간 7~8회 출전해 1~4위에 랭크되는 뛰어난 기량을 보이고 있다.

“에라스^{ERAS}는 시대(Era)란 뜻의 복수 명사로 시대를 넘어 지속 활동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정균(40) 에라스 단장의 목소리에 활력이 넘친다. 이들은 찰나적 판단 실수나 컨트롤 미스로 자칫 생명을 날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스포츠에 열 일을 제쳐놓고 국내 최고의 슈퍼바이크팀이라는 명예에 도전을 거듭하고 있다.

프로팀은 시속 300km에 근접하는 초고속 레이스를 펼친다. 이를 위해선 성능이 뛰어난 바이크는 물론이고 안전 등급을 받은 헬멧, 장갑, 부츠, 보호 장비가 들어간 재킷, 가죽 슈트 등을 갖춰야 한다. 또 서킷을 질주하는 훈련도 수시로 해야 하고 평소에는 근력 강화와 유연성,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한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썸’ 취미 활동이다. 그래서 슈퍼바이크 마니아들을 프로팀이라고 부른다.

인천팀 에라스는 대회 때마다 늘 상위에 오르고 헬멧이나 바이크에 ‘인천광역시’ 문구와 로고를 새겨 인천을 널리 알리고 있다. 이 단장은 “시민들께서 박수를 쳐주시고 아껴주시길 바란다”며 환하게 웃었다.

Superbike



인천에서 세계 대회 여는 게 꿈

인천의 항공테크기업으로 잘 알려진 숨비의 오인선 (50) 대표는 슈퍼바이크 마니아이자 에라스의 든든한 지원군이다. 지금도 팀원들과 서킷을 달리는 것은 물론이고 인천에서 세계 대회를 여는 날을 꿈꾸며 에라스의 고문을 맡고 있다.

그는 20대 초반 슈퍼바이크를 타다가 사업에 몰두하면서 쉬었다. 이후 40대 후반에 다시 핸들을 잡으며 고문으로 인천팀을 물심양면 뒷바라지하고 있다. 오고문은 “인천에서 세계적인 슈퍼바이크 대회가 열리는 날이 오기를 꿈꾼다”면서 “꿈은 언젠가 실현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 세계 슈퍼바이크 대회’를 머릿속에 그린다. 이를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3,000만 원을 후원해 영암에서 ‘숨비배 바이크 대회’를 개최했다. 훗날 인천 세계 대회를 위해 미리 대회를 연 것. 현재 국내에서는 프로팀 10~15개와 동호회 35~40개가 활동 중에 있다. 서킷은 전남 영암, 강원 인제와 태백 등에 있어 인천팀들도 다른 지역으로 달려가 훈련을 하는 상황이다.

“인천팀은 늘 상위에 입상할 정도로 실력도 좋으니 많은 인천 시민들께서 슈퍼바이크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인천 세계 슈퍼바이크 대회’를 꿈꾸는 그의 눈빛이 진지하다.

1 — 팀 에라스의 든든한 지원군, 오인선 숨비 대표
2,3 — 팀 에라스 대회 출전 모습
4 — 짜릿한 질주 후 가족들과 기념 사진



태동기에 있는 국내 슈퍼바이크의 세계

최근에는 일반 관람객이 급증하고 있다. CJ그룹이 2022년 대회를 주최하면서 바이크 팀원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영암 대회에는 3만여 명의 팀원들과 관람객이 운집해 대성황을 이뤘다. 기본 좋은 태동이다.

일반인들은 오토바이의 배기음에 환호하고 눈 깜짝할 사이 순위가 바뀌며 옆치락뒤치락하는 역동성에 흥분하며 열광한다는 것. 자동차의 포물러1(F1)에 관중들이 구름떼처럼 몰려 한 번에 수조 원대의 경제 파급력을 가져오는 것과 마찬가지다.

에라스의 이 단장은 “2019년부터 일반 관람객들이 모여들고 있다”며 “매년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머지않아 많은 분들이 대회를 즐길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팀 에라스는 자신의 이름과 인천시를 빛내기 위해 오늘도 달리고 또 달린다.

슈퍼바이크 대회는?

슈퍼바이크Superbike 대회는 통상 정해진 경주장(서킷)을 누가 빨리 달리느냐로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열린다. 슈퍼바이크는 사전적 뜻으로 엔진, 성능, 디자인, 상품성 등이 뛰어난 바이크를 말한다. 대회는 바이크 배기량에 따라 3등급으로 나뉘지고, 경기 방식으로 스프린트Sprint 레이스와 내구(耐久·Endurance) 레이스가 있다.

배기량에 따른 분류

	쿼터급	미들급	리터급
배기량	400cc	600cc	1,000cc
최고 시속	200km	280km	300km
출력	45마력	120마력	210마력
가격	1,000만 원 안팎	1,7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안팎

스프린트 레이스는 전남 영암 서킷 기준으로 3,045m의 코스를 18바퀴 달려 최소의 시간을 가리는 방식이다. 대략 24~25분 소요된다. 내구 레이스는 8시간 동안 서킷을 얼마나 많이 달리느냐로 승부를 가린다. 이때 크루 3~5명이 바이크를 번갈아 타며, 팀워크를 발휘해 경기 중 연료 보충과 바퀴 교체 등을 얼마나 빨리 해내느냐가 승패의 관건이 된다. 국내 대회는 매년 4~10월 영암, 강원도 인제와 태백 등에서 열린다. 스프린트 레이스가 영암에서 10회 정도, 인제나 태백에서 7~10회 개최된다. 내구 레이스는 영암에서 3~4회, 인제와 태백에서 각각 1~2회 열린다.

사진엽서를 통한 인천과 투레트의 가연佳緣



글 신용석 인천개항박물관 명예 관장

조선일보 파리 특파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오페라 극장 인근의 드루오^{Drouot} 거리를 자주 찾았다. 프랑스 최대의 경매장과 우표 수집가들을 위한 크고 작은 우표 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었다. 인천중학교 다닐 때부터 우표 수집에 열중하고 있어서 드루오 거리는 취미 생활의 낙원과도 같은 곳이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보기도 드문 세계 각국의 진귀한 우표들이 수집가들에게 비싼 값에 팔리고 있었다. 간혹 오래되고 귀한 한국 우표가 나오면 생활비를 털어서라도 구입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1972년 초였다. 드루오 거리의 유명한 우표상인 필라테리아에 들어가니 낯익은 주인이 미소를 지으며 옛엽서 한 장을 보여주는 순간 가슴 벅찬 감동이 복받쳐 올랐다.

1903년 구한국 우표가 붙은 인천항의 모습을 찍은 사진엽서였다. 프랑스에서 내 고향 인천의 사진엽서를 처음 마주한 후부터 사진엽서 수집은 우표 수집과 함께 또 다른 취미로 자리 잡았고 인천 사랑의 애향심으로 연결되는 느낌이었다. 자유공원에 있던 존스톤 별장과 홍예문거리 그리고 축항과 우체국 건물이 담긴 사진엽서를 영국과 독일의 우표상에서 한두 장씩 발견할 때마다 느끼던 감동은 그 어떤 즐거움과도 비견할 수 없었다. 사진엽서 수집을 시작하면서 유럽에는 많은 수집가들이 있으며 주요 도시에는 엽서 전문

상이 자리 잡고 있고 수집가들의 모임이 있는 것도 알게 되었다. 파리 특파원을 역임하는 동안 인천을 위해서 전국 각지의 사진엽서를 40여 매 수집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수집품은 유럽에서 특파원 생활을 하면서 얻은 값진 소득이었고 타국에서 고향 인천을 그리워하는 매체가 되었다.

두 차례 프랑스 특파원 근무를 끝내고 본사에서 사회부장으로 일하던 1988년 초로 기억된다. 오늘날 인천에 관한 글을 쓰는 분들의 필독서로 알려진 <인천 한 세기> 집필을 하시면서 필자의 옛 사진엽서 수집품을 자주 보셨던 선친 한웅 신태범 박사께서는 시민들도 볼 수 있는 전시회를 마련해보라고 권유하셨다. 1988년 6월 당시 인천직할시 공보관 전시실에서 선친의 권유로 마련한 ‘옛 사진엽서를 통해 본 개화기 인천 모습과 우리의 풍습’ 전시회는 성황이었다. 조우성, 손장원 씨 같은 분들이 사진엽서 수집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후 동호인들과 함께 인천향토사연구회를 결성해 10여 차례 사진엽서 전시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1988년 전시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사진엽서 전시회로 인정받고 있어서 ‘인천 최초’의 한 항목으로 추가할 수 있었다.

남부 프랑스 니스 인근에 위치한 산골 도시 투레트^{Tourrettes}는 어머님 이성자 화백께서 1966년 옛 올리브 농가를 매입해 별장 겸 화실로 쓰시다가 1994년 당신께서

기본 설계를 해서 신축된 아름다운 아틀리에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프랑스는 물론이고 유럽에서도 유명한 알프스를 배경으로 지중해를 마주하는 중세풍 아름다운 마을 투레트의 시장을 역임한 3성 장군 출신인 다미앵 바가리아^{Damien Bagaria} 장군도 사진엽서 수집가다. 젊은 시절 초급 장교 때 파리 교외 지역이나 동부 프랑스 쪽에 근무하면서 한두 장씩 수집한 고향 투레트의 옛 사진엽서를 보면서 향수를 달랬다고 했다.

바가리아 전임 시장은 퇴임 후 투레트에서 발간하는 계간지 편집장을 맡고 있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새해에도 사진엽서 특집호를 발간해서 눈길을 끌었다. 이성자 화백 아틀리에보존협회 명예회장도 맡고 있는 바가리아 전임 시장은 지난해 가을 이 화백의 손자 신평재 군에게 당신이 수집한 사진엽서 40여 장을 주면서 “아버지가 수집하고 있는 인천 사진엽서와 함께 투레트 사진엽서에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성자 화백의 후손들이 자신처럼 사진엽서를 수집하는 것을 알고 있는 그가 할머니님 고향 진주의 산 모양과 같다며 사랑하던 투레트에 대한 애착을 사진엽서를 통해 지속시키려는 의도로 읽혔다. 사진엽서를 통한 고향 사랑이 반세기가 지난 후 인천과 투레트의 또 다른 인연으로 연계되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가연^{佳緣}으로 느껴졌다.



1988년 열린 우리나라 최초의 사진엽서 전시회 도록(좌)과 지난해 투레트에서 사진엽서 특집호로 발간된 계간지(우)



오래된 사진엽서 속 오래전 인천 오래전 투레트



1



2



3



5



4

1988년 6월, 당시 인천직할시 공보관 전시실에서는 ‘옛 사진엽서를 통해 본 개항기 인천 모습과 우리의 풍습’ 전시회가 열렸다. ‘인천 최초’의 사진엽서 전시회를 통해 소개된 오래전 인천 이야기의 일부 그리고 반세기가 지난 후 인천과 또 다른 인연으로 이어지게 된 프랑스 투레트의 오래전 모습을 전한다.

01

제물포항(1903)

노일전쟁을 앞둔 긴박한 분위기에 싸인 병참 기지로서 활기가 가득한 칠통마당의 풍경이다. 멀리 중앙에 보이는 건물이 당시의 인천세관이다.

02

인천 시가 풍경(1913)

문학산을 배경으로 오른쪽에 내항을 안은 일본인 거주지의 전모를 담고 있다. 앞면 오른쪽 2층 목조 건물이 인천부청이고 왼쪽 2층 벽돌 양옥이 전 흥령거상회의 사옥이다.

03

투레트 마을의 중심가(1916)

투레트 마을의 중심거리에 정장한 부인들과 어린이들이 나와 있다. 앞에 보이는 산에는 올리브 나무 등이 많이 자란다. 지금도 변함없는 길은 니스에서 향수의 도시 그라스로 통하는 간선도로의 일부다.

04

투레트 마을의 광장(1918)

남방 철도(나스~그라스)가 통과하는 투레트 마을의 광장에 당시로서는 희귀했던 승용차가 보인다. 이 광장은 오늘날 공용 주차장으로 쓰이며, 주말에는 특산물 시장이 열려 사람들이 활기가 넘친다.

05

인천항(1908)

노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이 통감부 정치를 실시한 이후의 상황이라 왼쪽 언덕에는 영국영사관이, 오른쪽 구릉에는 존스톤 별장의 원경이 보이는 활기에 충만한 칠통마당 부두 풍경이다.

문화가 일상으로 흐르는 행복한 도시

아트센터인천의 품격은 높고, 파라다이스시티,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등 초호화 인프라도 흥행 가도다. 하지만 인천이 그리
는 문화 도시의 청사진은 따로 있
다. 문화와 예술이 시민 삶 그 자체
가 되는 것, 문화를 즐기고 예술을
누리는 것이 하나의 일상이 되는
것, 그렇게 인천다움을 실현해 가
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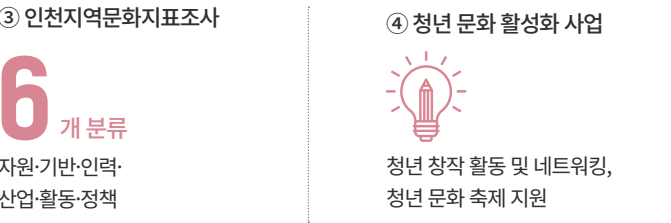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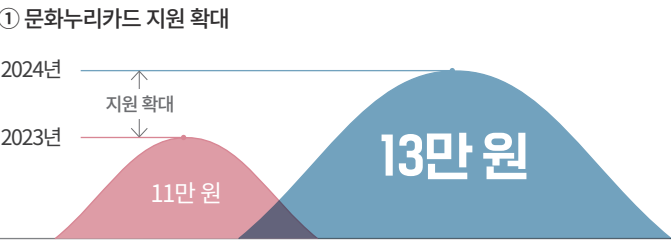


‘가까이 더 가까이’ 문화가 이끄는
시민 행복 실현 전략

- ①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향유할 수 있는 ‘문화 누림’ 확대
- ② ‘로컬리즘(인천다움)’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문화 콘텐츠 육성
- ③ 은퇴자 및 청년층 대상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운영 혁신

01 문화로 소통하는 즐거운 도시 조성

인천문화예술회관, 아트센터인천, 트라이볼 등 인천 대표 문화 시설 통합 법
인을 설립하고, 인천문화재단 운영 혁신으로 시민 체감형 문화 누림 정책 발
굴과 확대를 추진합니다. 또한, 제60회 시민의 날을 기점으로 인천시 전역
에서 시민과 예술가가 주체가 되는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02 영상과 콘텐츠가 어우러진 문화 도시 조성

인천의 특색 있는 영상 콘텐츠 및 문화 콘텐츠 산업의 발굴과 육성, 연계로
디지털 시대 문화 도시 인천의 문화 누림 환경과 도시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 디아스포라 영화제 확대
재외동포청 협업 및 연계
-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축제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 개최 MOU 체결
-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및 창작 집중 지원

03 시민이 공감하는 종교 문화 행사 및 지역 문화 계승

시민이 직접 즐기는 문화 축제로서의 종교 문화 행사를 지원하고,
전통 사찰 보수와 정비 등으로 종교 문화에 대한 이해도 상승 및 시민 화합을 도모합니다.

① 종교 문화 행사



② 전통사 삼랑성 전통문화 교육관 건립, 전통 사찰 보수·정비 12개소

04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서비스 강화

시민 친화 공간으로서의 공공도서관 혁신을 추진한다. 도서
관 기능 혁신 및 국비 지원 사업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역량
을 강화하고 시민의 도서관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 ① 도서관 기능 혁신
은퇴자와 청년층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 조성
- ② 은퇴자 대상 프로그램



- ③ 국비 지원 사업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U-도
서관 서비스 지원

시민과 함께하는 독서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독서 문화 행사를 열고, 인천의 문화 자산을 활
용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시민 독서 문화 진흥에 기여합니다.

- ① 인천아트북페어(6월), 인천독서대전(9월), 배다리책피움한마
당(10월), 인천 마을 설화 그림책 제작(연중)

작은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한다. 지역의 생활 밀착 독서 문화
공간인 작은 도서관 확대에 따라 재정·인력 지원 사업을 통해
운영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① 작은 도서관 확대



- ② 지원 사업
평가 연계 운영 활성화 지원, 컨설팅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
원, 자원 활동가 실비보상금 지원, 우수 사례 공모 및 운영
매뉴얼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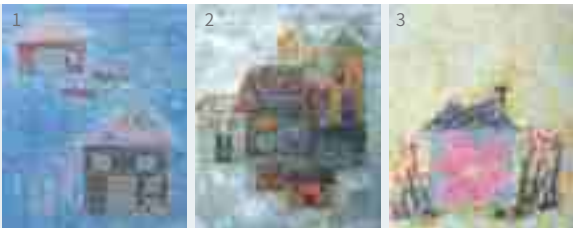
나의 사춘기,
송림동 달동네

글 최정숙 작가 | 사진 최준근 포토디렉터

그 좁은 집에 들어가기 싫어
학교 수업이 끝나도 도서관에 있다가
어두컴컴한 밤이 되어서야 들어가곤 했지요. (중략)
그 기억들을 그동안 꺼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 들고 보니,
그 아픈 기억도 소중한 나이가 되고 보니,
그 시간들을 사랑하고 보듬고 싶어집니다.

전시를 준비하며 끄적였던
일기의 한 대목이다. 동구
만석동 우리미술관을 무대
로 하는 개인전 ‘나의 사춘기, 송림동 달동네’는 내 어릴 적 기
역의 파편이다.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 송림동 달동
네 송현교회 아래 두 칸짜리 좁은 집이 삶의 터전이었다. 마
냥 사랑받고 싶고 행복하고만 싶었던 소녀의 마음속에 송림
동 달동네는 시리고 아픈 기억일 수밖에 없었다.

그때 그 소녀에게, 또 송림동 달동네가 삶의 터전이었기에 움
츠려야만 했던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그 시절이 상
처와 아픔만은 아니었음을 이야기해주기 위해 붓을 들었다.
인천문화재단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시작된 전시 준비는 강



1 — 나의 사춘기, 27.3x22, Mixed Midium, Acrylic On Canvas, 2024
2 — 송림동 달동네_봄이 오는 겨울 기억 풍경, 53x45.5,
Mixed Midium, Acrylic On Canvas, 2024
3 — 나의 사춘기, 27.3x22, Mixed Midium, Acrylic On Canvas, 2024



행군이였다. 1월 초부터 딱 두 달 동안 무려 50점의 작품을 완성했고, 그중 41점을 선보인다. 대부분의 작품은
콜라주Collage 기법을 활용했다. 천과 골판지를 오려 캔버스에 붙이고, 아크릴로 채색했다. 오래전 어머니에게
받은 천 조각과 어머니가 베고 잤던 베갯잇도 작품의 재료로 쓰였다. 송림동 달동네에서 내가 살았던 집, 재개
발정비사업을 앞두고 문이 굳게 닫힌 채 남아 있는 집의 현재 모습을 그려낸 작품 ‘샛길로 193’은 그렇게 탄생
했다. 그 시절 비탈지고 어두컴컴하기만 했던 송림동 달동네에도 분명 희망은 있었을 터이다. 산비탈 골목, 다
닥다닥 웅기종기 모여 살던 달동네 집에서 새어 나왔을 따스한 불빛들도 작품 속에 고스란히 담았다.








안타깝게도 작품 속 풍경은 곧 사라진다. 이번 전시는 나의 기억이자, 인천의 오래된 동네에 대한 기록이다.
작품과 마주하는 이들이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이제는 기억 속에서만 존재할 송림동 달동네를 작품으로 만나
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작가 역시 나와 같은 아픔을 똑같이 겪었구나’ 하는 공감대를 얻어가는 것도 좋
을 일이다. 동구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냈던 이들이 작품을 통해 기억을 추억으로 승화시키고, 삶을 위로하며
스스로 ‘애썼다’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최정숙 개인전 ‘나의 사춘기, 송림동 달동네’
장소 우리미술관(동구 화도진로192번길 3-11)
일시 4월 30일까지
화·수·금·토·일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목요일 오후 2시~6시
※ 매주 월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휴관
문의 032-764-7663~4

CULTURE
CALENDAR

04
APRIL 2024

<div>12 금</div> <div>인천시립합창단 제185회 정기연주회 ‘윤의중 예술감독 취임 연주회’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오후 7시 30분 R석 2만 원, S석 1만 원, A석 7,000원 032-420-2000</div> <div>13 토</div> <div>토요 스테이지 ‘모두가 아는 클래식 I’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오후 5시 R석 3만 원, S석 2만 원 032-453-7700</div> <div></div> <div>17 수</div> <div>2024 커피콘서트 II 코리아 탭 오케스트라 ‘TAP&TALK’ 동구문화체육센터 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 5,000원 032-420-2000</div>	<div>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 기념 연주회’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오후 7시 30분 전석 무료(선착순) 032-453-7700</div> <div>18 목</div> <div>지혜를 배우는 시간 ‘대담한 대담 I’ 아트센터인천 다목적홀 오후 7시 30분 전석 2만 원 032-453-7700</div> <div>19 금</div> <div>인천시립극단 제91회 정기공연 ‘화염’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7시 30분 20~21일 오후 3시 전석 3만 원 032-420-2000</div> <div></div> <div>2024 살롱콘서트 휴(休, HUE) ‘패치워크로드’ 인천문화예술회관 복합문화공간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 원 032-420-2000</div>	<div>옥탑 재즈 I 아트센터인천 다목적홀 오후 7시 30분 전석 2만 5,000원 032-453-7700</div> <div></div> <div>20 토</div> <div>최현우의 MYSTICUS 남동소래아트홀 오후 3시, 7시 R석 3만 5,000원, S석 2만 5,000원 032-439-5001</div> <div>2024 살롱콘서트 휴(休, HUE) ‘사공’ 인천문화예술회관 복합문화공간 오후 6시 전석 1만 원 032-420-2000</div> <div>21 일</div> <div>챔버 페스티벌 시리즈 ‘아우어퍼쿠션’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30분 전석 1만 원 032-289-4275</div>	<div>22 월</div> <div>간헐적 단식 콘서트 ‘경인고속도로’ 인천문화예술회관 복합문화공간 앞 광장 낮 12시 무료 032-420-2735</div> <div>23 화</div> <div>간헐적 단식 콘서트 ‘박상도’ 인천문화예술회관 복합문화공간 앞 광장 낮 12시 무료 032-420-2735</div> <div>24 수</div> <div>마실 ‘초이스 초이스’ 남동소래아트홀 오전 11시 전석 5,000원 032-439-5001</div> <div></div> <div>간헐적 단식 콘서트 ‘요들싱어 김현진’ 인천문화예술회관 복합문화공간 앞 광장 낮 12시 무료 032-420-2735</div>	<div>25 목</div> <div>간헐적 단식 콘서트 ‘이선경 밴드’ 인천문화예술회관 복합문화공간 앞 광장 낮 12시 무료 032-420-2735</div> <div>26 금</div> <div>인천시립교향악단 제421회 정기연주회 <2024 뉴 골든 에이지 I> ‘브루크너 7번’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 원 032-420-2000</div> <div>2024 살롱콘서트 휴(休, HUE) ‘잭킹콩’ 인천문화예술회관 복합문화공간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 원 032-420-2000</div> <div></div> <div>27 토</div> <div>2024 살롱콘서트 휴(休, HUE) ‘이설아’ 인천문화예술회관 복합문화공간 오후 6시 전석 1만 원 032-420-2000</div>	<div>28 일</div> <div>로비 콘서트 ‘하프 앙상블’ 엘림아트센터 로비 오후 2시 전석 1만 원 032-289-4275</div> <div></div> <div>29 월</div> <div>간헐적 단식 콘서트 ‘노래하는 베짚이’ 인천문화예술회관 복합문화공간 앞 광장 낮 12시 무료 032-420-2735</div> <div>30 화</div> <div>간헐적 단식 콘서트 ‘보쏘(BOSS5)’ 인천문화예술회관 복합문화공간 앞 광장 낮 12시 무료 032-420-2735</div> <div></div>
--	---	---	---	--	--

이달의 전시

<div>RainBow 컨벤시아갤러리 4월 14일까지 0507-1356-0199</div> <div></div>	<div>사유의 시선 덴아트갤러리 4월 17일까지 0507-1384-0287</div> <div></div>	<div>사진으로 읽는 인천 근현대 소설- 윤정미 사진전 한국근대문학관 기획전시관 4월 28일까지 032-773-3800</div> <div>세계의 나그네, 김찬삼 영종역사관 5월 31일까지 032-746-9901</div>
---	---	---

<div>이영란의 감성체험 가루나무모래흙 6월 29일까지 남동소래아트홀 0507-1401-5710</div> <div></div>	<div>시골위의 도시 여행 인천도시역사관 3층 어린이전시실 오픈런 032-850-6000</div> <div></div>
--	---

공연 맛보기

인천시립합창단 제185회 정기연주회 ‘윤의중 예술감독 취임 연주회’



윤의중 신임 예술감독과 함께, 새로운 여정의 시작

제8대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부임한 윤의중 지휘자와 인천시립합창단의 만남을 축하하는 취임 연주회가 열린다. 인천시립합창단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념의 갈등과 무고한 희생 을 돌아보며 반전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감동의 무대를 준비했다. 끊이지 않는 전쟁의 공포와 경 제 위기가 고조되는 현재, 우리에게 ‘사랑’만이 해답이 될 수 있음을 전한다. 더불어 생명이 소생하 는 봄과 그리움을 담은 노래를 그리고 인천시립합창단의 새 출발을 기뻐하는 경쾌하고 즐거운 무 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視線

시민 선

계절을 재촉하는 초록의 싱그러움

오늘, 시민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새 희망 잔뜩 머금은 반짝이는 눈망울로 바라본 시민의 시선을 따라갑니다. 시선의 끝자락에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빛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시민의 눈에 비친 삶 속 이야기, 초록의 계절 봄을 맞아 ‘나무와 숲’의 싱그러움을 담았습니다.



1

#계양산 #지유의숲 #힐링하러오세요

첫 번째 시선

계양구에는 계양산이 자리하고 있어 사시사철 산이 주는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봄과 여름이면 임학공원과 산림욕장 그리고 치유의 숲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를 따라 힐링하기 안성맞춤이죠. 완연한 봄의 시작, 계양산으로 놀러 오세요!

안애니(계양구 봉오대로)

#회사앞나무 #우직한자태 #좋은계절좋은기운

두 번째 시선

회사 화단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 한 그루입니다. 지난봄 찍어두었던 사진을 우연히 사진첩을 정리하다 발견하게 됐네요. 계절의 변화와 상관없이 한결같은 자태가 우직하고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늘 그 자리에서 좋은 기운을 뿜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김성철(서구 신석로)

#회사창가 #작은화분가족 #올해도파이팅

세 번째 시선

동료들과 회사에서 함께 키우는 작은 화분들입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잠깐씩 바라볼 때면 달콤한 휴식이 되어주곤 합니다. 추운 겨울에도 늘 싱그럽게 느껴지던 화분들이 올봄 탐스럽게 피어나 동료들에게 초록의 에너지를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경(연수구 송도과학로)

2 3



4 5

#자유공원 #플라타너스 #시원한그늘

네 번째 시선

자유공원에 놀러 갔을 때 만났던 커다란 플라타너스입니다. 한여름이라 공원까지 오르는 길이 제법 힘들었는데, 그때 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드리워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플라타너스라는 사실을 알고 무척 놀랐던 기억이 선합니다.

강시내(부천시 원미구)

#가족여행 #평창전나무숲길 #인천의숲

다섯 번째 시선

지난여름, 가족과 함께한 평창 여행 중 전나무숲길을 들렀을 때의 사진입니다. 100년 이상 된 전나무가 빼곡하게 들어찬 숲길을 걸으며 상쾌함을 만끽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다시 시작된 싱그러운 계절, 올봄에는 인천의 숲을 누벼야겠습니다.

윤훈상(연수구 독배로)

독자 여러분의 ‘가족사진’을 보내주세요

- 참여 방법
1. 주제에 맞는 순간을 포착해 사진으로 찍는다.
 2. 짧은 메시지와 함께 이메일로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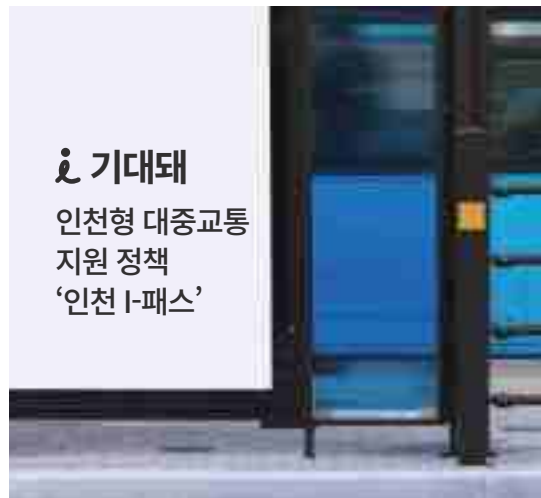
보내실 곳 gmi2024@naver.com

※ 응모 시 성명과 휴대폰 연락처,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 지면에 사진과 사연이 소개될 경우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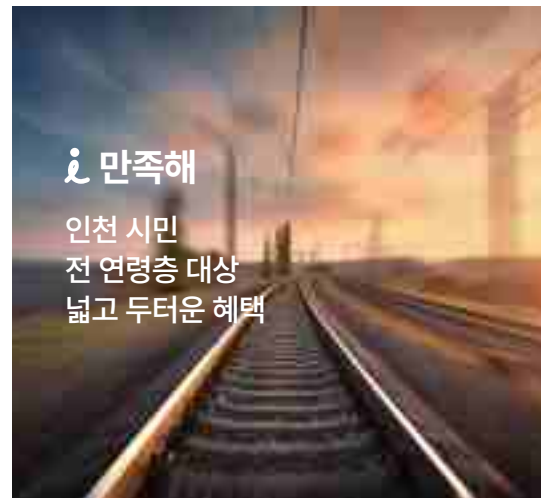
IMAGE NEWS

66 대한민국이 부러워할 특급 대중교통 지원 정책 99
‘인천 I-패스’가 찾아옵니다!



#정부 'K-패스' 사업 기반, 지원 범위 확대 보완
#인천 I-패스' 5월 시행 구체화
#시민 이동권 보장 위한 선택권과
더 넓고 더 두터운 혜택 기대

01



#월 60회 한도 무제한으로 확대
#청년 19세~34세, I-패스는 19세~39세 혜택
#내년 하반기부터는 6세~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까지 혜택

02



#인천 서울 오가는 시민 부담 완화 위해
기존 10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하
#30일간 무제한 사용 가능(8월부터)

03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최고의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 추진
#고물가, 고금리로 경제적 어려움 겪는 시민 위한 노력
#하루 24시간, 365일이 행복한 인천 실현

04

더 크게 보고, 더 공감하는
인천 뉴스 +

- 1 — 유정복 인천시장이 옹진군 백령도를 찾아 필수 의료 체계를 점검했다. 백령병원을 찾아 이두익 분원장과 의료 인력 수급, 시설·장비 보강 방안 등을 논의하며 도서 지역 의료 체계를 점검하고 병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2 — 우리 시가 APEC 정상회의 유치에 위한 본격적인 공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한은행과의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셀트리온, 연세대 등 기업, 대학 등과 함께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협력체계도 다질 예정이다.
- 3 —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물포르네상스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과 동인천역 일원 복합 개발 사업, 송인지하차도 건설 현장 등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 4 — 한국 프로야구 별들의 축제인 KBO 올스타전이 7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개최된다. 2008년 이후 16년 만으로, 이번 올스타전 개최는 SSG랜더스 창단 이후 홈구장에서 열리는 첫 번째 올스타전이라 의미가 크다.
- 5 — 19세 청년(2005년 출생) 9,221명에게 선착순으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지원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들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고 문화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문화 예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 6 —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강화와 옹진 일부 지역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TV에 버스 도착 정보 표출 서비스를 시작했다. 향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아파트 엘리베이터 전광판에도 버스 도착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7 —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시청 중앙홀에서 상설 채용 박람회가 열린다. 4월 채용 박람회는 4월 30일 개최될 예정이며, 사전 참여 등록 또는 현장 참여 등록 모두 가능하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한다.

INCHEON NEWS

서해 5도에 거주하는 것만도 애국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2월 28일 서해 최북단 섬인 웅진군 백령도를 찾아 필수 의료 체계를 점검했다. 유정복 시장은 백령병원을 찾아 이두익 분원장과 의료 인력 수급, 시설·장비 보강 방안 등을 논의하며 도서 지역 의료 체계를 점검하고 병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백령병원은 지난해 12월 산부인과 전문의를 채용하면서 2021년 이후 중단된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해졌다. 시가 섬 지역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하는 1섬 1주치主治 병원 사업에는 현재 9개 섬에 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길병원, 인하대병원 등과 응급 원격 협진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다.

또한 노후한 현재 병원선을 대신해 270톤 규모로 건조 중인 새 병원선은 내년 3월부터 운항을 시작한다. 새 병원선이 투입되면 순회 진료 지역이 6개 면(20개 도서 지역)으로 확대되고, 서해 지역 재난 상황 등 다수의 부상자 발생 시 신속한 치료와 후송도 가능해진다. 이에 함께 화재 출동뿐만 아니라 인명 구조, 응급 환자 이송 등의 임무를 수행할 소방 헬기(인천 3호기)가 신규 취항할 예정이다. 현재 운행 중인 응급 의료 전용 헬기(닥터 헬기)와 함께 서해5도 지역의 응급 의료 발생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시장은 “백령도를 포함한 서해 5도는 인천의 소중한 자산이자 국가 안보의 요충지로 이곳에 거주하는 것만도 애국”이라며 “주민들이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응급 상황에서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시 보건의료정책과 032-440-2715

인천 청년은 ‘문화 예술 프리 패스’

우리 시는 관내 19세 청년(2005년 출생) 9,221명에게 선착순으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지원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들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고 문화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문화 예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우리 시는 민법상 성년이 되는 전국 19세 청년 약 16만 명에게 1인당 공연·전시 관람비 최대 15만 원을 지급한다. 소득 관계없이 1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협력 예매처인 ‘에스24’와 ‘인터파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 지역 확인 과정을 거쳐 뮤지컬, 클래식, 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단, 국비 지원분에 해당하는 10만 원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5만 원은 시도별 추경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문의 시 문화정책과 032-440-4014

개 식용 종식법 공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합니다

우리 시가 개 식용 종식법 공포에 따른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개 식용 종식법 공포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등 시설의 신규·추가 운영이 금지되고,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종식·도살과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 식용 업계 영업자는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을 군·구청 업종별 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신고자를 대상으로 전·폐업 기준을 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시는 다양한 업종 형태로 사각지대에 있는 개 식용 유관 업종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경제산업본부장을 팀장으로 개 식용 종식 TF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개 식용 업계의 전·폐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시 농축산과 032-440-4433

제물포 르네상스 현장 찾아 속도감 있는 추진



유정복 인천시장이 중·동구 일대 제물포르네상스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지난 3일 유정복 시장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현장과 동인천역 일원 복합 개발 사업 현장, 송인지하차도 건설 현장 등 원도심 개발 사업 현장을 차례로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유정복 시장은 수도권 최초 국립 해양 문화 시설이 될 국립 인천해양박물관 건립 현장을 찾아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후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의 대표적인 원도심 개발 사업 중 하나인 동인천역 일월 복합 개발 사업 현장과 송인지하차도 및 연결 도로 건설 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유정복 시장은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상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더 이상 원도심 개발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동인천역 일대를 원도심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고, 원도심 일대 교통망을 확충하는 등 시민들이 혁신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시 섬해양정책과 032-440-4822

KBO 올스타전, 인천 상륙

KBO 올스타전이 7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개최된다. 2008년 이후 16년 만이다. 이번 올스타전 개최는 SSG랜더스 창단 이후 홈구장에서 열리는 첫 번째 올스타전이라 의미가 크다. 우리 시는 국내 최초의 야구 도시답게, 올스타전 개최와 함께 도시 브랜드 제고 및 다양한 정책 홍보를 통해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문의 시 체육진흥과 032-440-4078

‘자연순환공원’ 후보지를 찾습니다

우리 시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를 6월 25일까지 추진한다. 이번 3차 공모는 2021년 두 차례의 공모가 응모 지자체 없이 끝난 이후 대체 매립지 조성에 대한 논의가 주춤했으나, 지난해 2월 이뤄진 4자 협의체 기관장 회동에서 대체 매립지 조성 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국장급 실무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역량을 결집해 반드시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찾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보다 혜택을 확대하고 시설 규모는 축소하는 등 입지 지역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모 조건을 마련했다. 향후 조성될 수도권 대체 매립지는 2026년부터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어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협잡물 또는 잔재물만 매립하게 됨에 따라 환경적 영향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시 매립지정책과 032-440-8272

인천이 고정밀 전자 지도를 만듭니다

우리 시가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고정밀 전자 지도 수시 갱신 체계를 도입한다. 이 사업은 신기술(라이다, 드론 등)을 활용해 변화된 도시 내 도로, 건물 등의 정보를 수시로 갱신할 수 있는 정밀 전자 지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단계로 주요 도시 지역 중 활용도와 최근 갱신된 연도를 고려해 89.75㎢를 우선 갱신하고, 2025년 2단계에는 도서 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2026년부터는 광역시·도 최초로 고정밀 전자 지도 수시 갱신을 실현할 계획이다. 수시 갱신 체계가 마련되는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이던 갱신 주기를 매년 최신의 고정밀 전자 지도로 갱신할 수 있다.

문의 시 토지정보과 032-440-4588

버스 도착 정보, 이제 TV에서도 확인하세요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강화와 옹진 일부 지역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TV에 버스 도착 정보 표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는 우리 시와 KT의 협력 사업으로, 우리 시는 KT에 버스 운행 정보를 제공하고, KT는 제공받은 정보를 IPTV에 표출한다. 특히, 강화와 옹진 지역은 버스 배차 간격이 길고, 스마트 기기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많아 더위나 추위에도 실외 정류소에서 장시간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 우리 시는 향후 이 서비스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아파트 엘리베이터 전광판에도 버스 도착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의 시 교통정보운영과 032-440-1763

APEC 유치, 인천은 준비됐습니다



우리 시는 2025년 11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 공모 일정을 앞두고, 본격적인 공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간 우리 시는 2022년 12월 범시민유치위원회(110명) 출범을 시작으로, 100만 서명 운동 전개(2023년 5월~8월, 110만 명 달성), APEC 회원국 재외공관장 간담회(2023년 7월), APEC 유치를 위한 글로벌 인천 포럼(2023년 10월), 세계 정상급 석학 비노드 아가왈 석좌교수의 APEC 특강(2023년 11월) 등 다른 경쟁 도시보다 한발 앞선 차별화된 유치 활동을 펼치며 범시민 공감대 확산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달 11일 신한은행과의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셀트리온, 연세대 등 기업, 대학 등과 함께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협력체계도 다질 예정이다.

문의 시 글로벌도시기획과 032-440-1572

연평 어민들의 안전 조업을 지원합니다

우리 시는 2024년도 봄 어기 연평어장 꽃게 조업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연평도 현지 안전대책반을 구성해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 환경 마련에 나섰다. 우리 시는 연평어장 내 우리 어선의 안전 조업 및 조업 질서 유지를 위해 해양수산부, 해군2함대사령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옹진군 등 10개의 관계기관과 안전조업대책협의회를 가진 바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연평어장은 국가 안보와 어선들의 안전 조업이 위협받고 있는 지역으로, 우리 시는 연평해전 직후인 2003년부터 관계기관들과 협조해 매해 연평어장 안전조업대책을 수립하고, 현지 안전조업대책반을 구성·운영해 왔다. 올해 역시 봄 어기를 앞두고 우리 시를 주축으로 9개 기관이 함께 연평도 현지 안전조업대책반을 구성해 6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시 수산과 032-440-4863

시민 ‘마음 건강’을 위해 오늘도 달립니다

우리 시가 시민 대상 마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안심버스’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 시 마음안심버스는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45인승 대형 버스를 개조한 마음 돌봄 이동 상담실로, 스트레스 검진, 1:1 정신건강 상담 등을 진행하며, 필요시 지역 정신건강 서비스를 연계해 시민의 마음 건강 회복을 돕고 있다. 노인, 장애인 등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고 있는데, 2022년 본격 운행 이후 현재까지 총 290회 운행했다. 또한, 도서 지역인 옹진군 섬(덕적도, 장봉도 등)을 방문해 주민들의 마음 건강을 돌보았으며, 현대시장 화재, 전세 사기 피해 등 재난 발생 시에도 신속히 대응해 심리지원의 기동성을 높였다.

문의 시 건강증진과 032-440-1582

우리가 밝고 선
이 땅의 이름들



글 최재용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

연수구는 1995년 인천시가 광역시가 될 때 당시의 남구南區에서 갈라져 나와 새로 생긴 구區이다. 그때 연수·청학·동춘·옥련·선학동 등이 떨어져 나왔는데, 그중 가장 컸던 연수동이 구의 이름으로 정해졌다. 이보다 훨씬 전인 구한말 인천부仁川府 시절, 지금의 연수동 지역은 먼우금면에 속한 바닷가 동네였다. 당시 이곳에는 고촌말·술안말·함박말·머그미 등 여러 작은 마을이 있었다. 그런데 1914년 일제日帝가 전국적으로 행정 구역을 개편할 때 이들 여러 동네를 합해 ‘연수리延壽里’라는, 전혀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 이 이름이 광복 뒤에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리’만 ‘동洞’으로 바뀌어 연수동이 생긴 것이다.

‘연수리’를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수명壽’이 늘어나는<延> 동네’, 즉 ‘오래 사는 동네’라는 아주 좋은 뜻이다. 이곳이 문학산 남쪽에 있어 날씨가 따뜻하고, 바닷가라서 공기도 맑아 건강에 좋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였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연수’라는 이름은 이 동네의 환경이나 역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조선을 식민지로 삼은 일본인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글자인 ‘壽(목숨 수)’ 자를 갖다 붙여 멋대로 지은 이름이기 때문이다.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때 인천에서 이렇게 ‘壽’ 자를 넣어 새로 이름을 지은 동네로 남동구의 만수동萬壽洞과 장수동長壽洞이 더 있다. 이 두 곳에도 ‘오래 사는 사람이 많은 동네여서 붙은 이름’이라는 설명이 있지만, 틀린 얘기다. 만수동은, 연수동이 그런 것처럼, 새말·담방리·장승배기 등 여러 동네를 합

延壽區

네 번째 땅 이름
[연수구]

해 동洞을 만들면서 이전 이름들과는 아무 관계없이 새로 지어 붙인 이름이다. 장수동도 이곳에 있던 장자리壯者里와 수현리水峴里 등을 합해 새로 동을 만들면서 이들 두 이름의 앞 글자를 뺐으나 ‘壯’ 대신 ‘長’을, ‘水’ 대신 ‘壽’를 쓴 것이다.

따라서 연수동이나 여기서 나온 연수구는 사실 지역의 오랜 역사나 사연에 걸맞은 이름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이를 ‘일제의 잔재’라고 내리쥌고, 굳이 새로운 이름을 지어 붙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미 오래 사용돼 익숙하기에 새로 바꾸면 큰 혼란이 생길 텐데, 그 혼란을 감수할 만큼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름을 바꿀 것이면 1995년 남구에서 갈라질 때 바꿨어야지, 이제는 늦었다는 아쉬움은 있다. 그때 북구北區는 둘로 갈라지면서 ‘부평富平’과 ‘계양桂陽’이라는 옛 이름을 잘 찾아 가졌기 때문이다.



1910년대 지형도와 2014년 항공사진을 합성한 지도 중 연수구 부분
출처 : 인천시립박물관 <사라진 섬, 파묻힌 바다, 태어난 땅>

COUNCIL NEWS

행복을 실현하는 시민의 대변자



인천시의회의는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15일간 제293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38건의 안건 처리와 의원들의 심도 있는 시정 질문 및 5분 자유 발언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특히, 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 문제 해결, 수봉공원 고도 지구 제한 완화, 인천시 버스 노선 개편 등에 대해 질의하며,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마약, 우리 주변에서 멀어지도록

‘인천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를 위해 ‘마약’, ‘대마’ 등과 관련한 용어를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2024년 1월)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개선 계획 및 시행,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 마약류 용어가 무분별하게 오남용되지 않도록 조치 및 권고할 수 있는 규정 사항 등이 포함됐다.

면밀한 분석으로 시민 삶을 윤택하게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이하 예결전문위원실)이 올해 첫 번째 ‘지방 재정 분석 보고서’를 제작·배부했다. 그간 지방 재정은 중앙정부(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 지방 재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개별 지자체에 대한 분석은 개괄적인 수준에 그치며, 지표별 세부 분석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인천시의회 예결전문위원실의 분석 보고서는 인천시 지방 재정에 대해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및 재정계획성 등 크게 3가지 유형에 따른 평가 지표별 자체 재정 분석으로, 재정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은 물론이고, 올바른 재정 운영 방향까지 제시해 호평을 받고 있다.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 도시 구현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충전 시설 및 전용 주차 구역의 정의, 전용 주차 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세부 설치 기준,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하고자 하는 관계인에 대한 권고, 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충전 시설로 인한 화재 예방 및 피해 감소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고, 화재로 인한 시민의 불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빠르고 편리한 인천을 위한 노력



인천시의회 의원 40명 전원이 동의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발표한 5호선 연장 노선을 폐기하고, 기존 인천시 안대로 원당역·불로역까지 모두 포함한 4개 역을 반영한 노선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 절차를 무시한 채 김포시의 입장만을 반영한 대광위의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을 위한 일방적 연장 사업 조정(안)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인천시(안)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숙원 사업 해결을 통한 균형 발전 실현

인천시의회가 ‘정책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수봉지구 고도 제한 완화 방안’에 대한 의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수봉지구 고도 제한 문제에 대한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의장은 “수봉지구 고도 제한 완화는 30년 묵은 오랜 지역 숙원 사업”이라며, “고도 제한을 완화해 해당 지역 주민의 열악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 재생 사업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공직자도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기에

일부 민원인으로 인해 고초를 겪는 인천시 공직자들을 지켜달라는 인천시의회의 요구에 인천시장이 강력한 직원 보호 의지를 표명했다. 인천시장은 인천시 공직자 전체에 해당하는 9,850명에게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에서 인천시장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고통은 우리 업무 의지를 흔들어 놓고, 스트레스는 우리 건강과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시민과 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다”라며,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전세 사기로 인한 아픔이 멈추도록

인천시의회가 인천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폭넓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전세 피해지원센터가 미추홀구와 인천시청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야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과도한 업무에 따른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과 인력 확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인천시의회는 전세 피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부산시의 센터를 방문해 인천시 정책과 비교·분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국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피해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인천의정소식> 구독 안내



인천시의회의 자세한 의정 활동 소식은 의회 소식지 <인천의정소식>에서 확인하세요. 모바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우편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의회사무처 032-440-6136



<인천의정소식>
바로 가기

여기, 오직 시민 행복을 위해 달리는 인천의 오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인천의 찬란한 내일을 여러분만의 빛깔로 색칠해주세요. 새하얀 공간이 시민의 색으로 물들어갈수록, 인천의 행복한 미래가 아름답게 완성됩니다.

인천의 눈부신 오늘과 찬란한 내일

시민의 색으로 물들다

백령·대청, 세계가 인정하는 지질공원으로

인천의 섬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향한다.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이 환경부로부터 국가지질공원 재인증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됐다. 인천시는 6월과 11월 각각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의향서와 본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2025년 유네스코의 서면·현장 평가를 거쳐 2026년 집행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백령·대청 지질공원센터 조성, 협력 시설 및 안내소 영문 표기 등 기반 시설 구축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지오빌리지, 지오스쿨, 지오파트너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집중할 계획을 갖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국제적인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명소와 경관을 보전과 교육,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리하는 곳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전 세계 48개국에서 19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명승 제8호 백령도 두무진



2024년 3월호의 시민 작가를 소개합니다!



양서희 부평구 부일로



이경희 미추홀구 영전로



주정순 남동구 남동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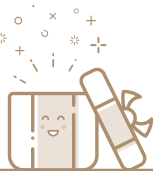


한송이 연수구 선학로



박명숙 부평구 부흥로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대청 지역은 국가지질공원 인증 후 지질공원해설사 수요와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가지질공원에 이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받게 되면, 더 많은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컬러링 작품을 보내주신 시민 작가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보내는 방법 ① 우편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홍보기획관실 <굿모닝인천> 담당자 앞
② 메일 : gmi2024@naver.com
기간 2024년 4월 17일까지
문의 032-440-8305 ※ 응모 시 성명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INFO BOX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01 배움에 늦음은 없습니다

내용	인향초중고야간학교 신입생 모집
교육 과정	한글, 초중고 과정
교육 시간	고시반 : 월~금요일 오후 6시 30분~9시 한글반 : 월·수·금요일 오후 6시 30분~9시
모집	상시
접수	평일 오후 2시~6시(토·일·공휴일 휴무)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여권 사진 3매
문의	032-772-4061



02 이 봄, 책과 함께 시작하세요

내용	연수구 마을 이야기 시리즈 도서 <청학동 이야기> 발간 기념 북 콘서트
일시	4월 18일 오후 7시
장소	청학아트홀
대상	연수구 역사, 문화 등에 관심 있는 누구나
비용	무료
참여	연수문화원 홈페이지 및 방문 신청
문의	032-821-6229

03 정신 건강 인식 개선에 동참하세요

내용	인천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시민 대상 정신 건강 인식 개선 설문 조사 이벤트
참여 대상	인천 시민 누구나
참여 기간	4월 8일(월)~5월 3일(금)
당첨 발표	5월 8일(수)
당첨 인원	50명(무작위 추첨)
참여 방법	정신 건강 인식 개선 영상 시청하기 → 인천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이벤트 페이지 로그인 후 만족도 조사 실시하기(파란색 ‘참여하기’ 눌러야 제출 완료) → 이벤트 당첨 발표날 확인하고 선물 받기
참여 혜택	햄버거 세트
문의	032-468-9911



04 상가임대차 분쟁, 교육으로 예방해요

내용	2024년 인천광역시 상가임대차 이해당사자 교육
대상	인천 시민 누구나
일시	4월 17일(수) 임대인 관점 : 오후 1시 임차인 관점 : 오후 3시 30분
규모	선착순 25명
신청	온라인 또는 유선 전화
혜택	수료증, 기념품 증정
문의	032-715-7294



05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드립니다

내용	인천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온라인 마음 건강 프로그램 마음챙김학교
참여 대상	인천 시민 누구나
참여 기간	기념품 소진 시까지
참여 방법	마음챙김학교(정신 건강 아카데미) 로그인→6회기 프로그램과 만족도 조사 참여 완료 후 상품 수령 주소 제출
참여 혜택	양키 캔들·워머 세트 ※ 참여 완료 후 홈페이지 내 팝업 게시물을 클릭해 기념품 수령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필수
문의	032-468-9911



06 1인 가구 정보를 한눈에

내용	인천 1인 가구 포털 서비스 개시
명칭	인천 1인 가구 포털(www.incheon.go.kr/1in)
운영 내용	- 인천시 1인 가구 정책 및 분야별 지원 사업 소개 - 온라인 상담 실시(대면 및 비대면 상담 연계) - 유관 기관 홈페이지 연계
접근 경로	- 인천시청 홈페이지→패밀리 사이트→인천 1인 가구 포털 - 민간 포털(네이버, 다음 등) : ‘인천 1인 가구 포털’ 검색
문의	032-440-2807



07 시민과 함께, 현장에서 소통해요

내용	인천시 구석구석 생생 시정 현장 견학 프로그램
일자	4월 11일~12월 13일
대상	시민, 단체 등 인천시에 관심 있는 누구나 ※ 1회 최소 20명 이상 신청 가능
장소	1개 권역 내 2~3개 견학지 선택 ※ 강화권역, 옹진권역, 중부권역(중구·동구·미추홀구), 남부권역(연수·남동구), 북부권역(부평·계양·서구)
신청	인천시 홈페이지 → 시민 참여 → 생생 시정 견학 → 생생 시정 견학 예약하러 가기
문의	032-440-2427, 2495



08 폐업은 또 다른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내용	2024년 소상공인 폐업 및 사업 전환 지원 사업
신청 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대상	인천 소재 폐업(예정) 소상공인(사업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폐업 예정자), 기폐업 소상공인(2024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만 해당)
지원 내용	재기 지원 컨설팅 및 점포 철거비 지원 ※업체당 최대 250만 원 이내, 공급가액의 90%
접수 절차	홈페이지(www.insupport.or.kr) 접속→신청서 다운로드→온라인 및 방문 접수
문의	032-715-4215

화제의 책

<와~ 남동구다>

마을 이야기 편 /생태 이야기 편



마을 활동가들과 현직 교사 등이 남동구의 마을 이야기와
생태 이야기를 시리즈로 발간했다. 마을 이야기 편은 남동구의
문화유산, 자연환경, 역사와 문화 등을 다루고 있으며, 생태
이야기 편은 장수천, 소래습지생태공원, 인천대공원 등을 찾아
생태 학습과 생태 놀이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가격 각 권당 2만 5,000원 | 구입 문의 야미고 032-422-8048

송도컨벤시아

2024 펫 가족 여행 박람회
4월 12일~15일 오전 10시~오후 6시
송도컨벤시아 2홀
02-6204-3577

마이펫페어 2024
4월 12일~15일 오전 10시~오후 6시
송도컨벤시아 3·4홀
02-6204-3577

2024 인천 튜닝카 캠핑 박람회
4월 20일~21일
송도컨벤시아 3·4홀, 야외 광장
010-7772-8572

미추홀도서관

**4월 톨레랑스 특강
‘유럽 미술관 기행’**
4월 9일~23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
성인 대상
032-440-6666

그림책 원에 테라피
4월 13일 오전 10시~정오
가족 대상
032-440-6665

**4월 문화가 있는 날
‘에세이 글쓰기 기본 특강’**
4월 23일 오후 7시~9시
성인 대상
032-440-6665

초등 자녀 독서 교육의 힘!
4월 17일~24일
매주 수요일 오후 7시~9시
성인 대상
032-440-6668

**과제지원센터 부모 교육 특강
‘마음지구력’**
4월 11일 오후 7시~9시
032-440-6647

청라호수도서관

**4월 작가와의 만남 특강
‘일상에서 영감 얻기’**
4월 24일 오전 10시~정오
성인 대상
032-563-8044

**도서관 주간 기념 ‘과년도(2022년도)
잡지 무료 나눔 행사’**
4월 20일~21일 오전 10시~오후 3시
032-563-8127

청라국제도서관

디즈니 샌드 아트
4월 12일 오후 5시~6시
초등 대상
032-562-1675

**4월 작가와의 만남
‘초등 문해력 공부 혁명’**
4월 13일 오전 10시~정오
성인 대상
032-562-1675

영종하늘도서관

김성우 작가와의 만남
4월 14일 오후 3시~5시
성인 대상
032-746-9139

팝업북 만들기
4월 19일, 23일 오후 4시~5시 30분
초등 대상
032-746-9139

마전도서관

그림책 원에 테라피 ‘잠시, 멈춤’
4월 13일 오후 1시~3시
인천 시민 대상
032-590-2833

**도서관 주간 기념행사
‘과년도(2022년도) 잡지 나눔 행사’**
4월 13일 오전 10시~오후 3시
인천 시민 대상
032-590-2832

하늘·땅·바다의
도시 이야기

인천국제공항이 개항을 앞두고 있고, 송도국제도시 매립 공사가 한창이던 시절로 기억한다. 장애물이라고는 흙더미뿐인 곳에서 굴삭기가 거침없이 큰 손을 휘두르고, 덤프트럭이 오가는 동선에 자연스레 길이 나던 게 새로 생긴 땅의 풍경이었다. 그 공사 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종종 있었는데 <바다의 도시 이야기>(시오노 나나미)란 책을 접한 것은 그 무렵이다.

‘베네치아공화국 1천 년의 메시지’란 부제가 붙은 이 책은 바다로 나감으로써 삶을 찾은 베네치아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로마제국의 붕괴 후, 중앙아시아의 훈족이 이탈리아에 쳐들어왔을 때, 베네치아인들은 난을 피해 바다 가까운 개펄로 이동한다. 이어 사람이 살 수 있는 수상 마을을 건설하고, 다시 그곳을 발판으로 바다로 진출한다. 그리고는 돋보이는 항해 기술과 뛰어난 상업 조직, 잘 정비된 제도 등을 바탕으로 ‘지중해의 여왕’으로 군림하게 된다. 베네치아가 주요 교역 상대국에 외교관을 상주시킨 세계 최초의 나라라는 사실도 흥미를 끄는 대목이다.

책을 읽으면서 인천과 베네치아 사이에 존재하는 교집합의 빗금 같은 걸 느꼈던 기억이 새롭다. 공교롭게도 인천 또한 여의도의 23배 되는 해상 신도시를 만든다는 구상 아래 송도 갯벌을 메우던 중이었다. 한술 더 떠 영종도와 용유도, 두 섬의 남쪽과 북쪽 끝을 방조제로 연결하고 안에 흙을 쏟아 부으며 바다를 육지로 둔갑시키는 공사도 한창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물기 말라가는 새 땅을 보면서 베네치아가 연상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다. 갯벌과 바다 매립을 계기로 인천도 베네치아처럼 영화를 누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기도 했다. 그 상상이 크게 빛나가진 않은 듯싶다.

지금 인천의 모습은 ‘상전벽해 桑田碧海’라는 말로 부족할 정도이다. ‘300만 시민’, ‘GRDP 100조 시대’, ‘제2 경제도시’란 타이틀을 거머쥔 인천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이제 또 한 번 인천이 베네치아 못지않은 새로운 도시 이야기를 쓰기 위해 펜을 들었다. 그것도 바다에 국한된 게 아니라 하늘과 땅, 바다를 아우르는 도시 이야기다.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물류 인프라가 주요 글감이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TOP 5 항공 강국’, ‘글로벌 TOP 4 해운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인천이 견인차 역할을 하는 여정을 담게 된다.

그런 면에서 <굿모닝인천> 4월호의 표지와 특집 기사는 인천의 하늘과 땅, 바다가 대한민국 미래를 완성시키는 대서사의 프리뷰라 할 수 있다. ‘하늘·땅·바다의 도시 이야기’가 멋진 에필로그를 남기기를 고대한다.

글 임성훈 본지 편집장



仁 · 生 · 네 · 컷

무장애 나눔길 따라 기분 좋은 봄 마중

인천에서의 행복한 삶을 네 컷 사진에 담는다.

<굿모닝인천>이 인천사진관 ‘仁·生·네·컷’을 통해 시민 그리고 독자 여러분께 사진으로 추억을 선물합니다.

참여 김영재·이순희 | 사진 최준근 포토디렉터



부쩍 포근해진 3월의 한낮, 다사로운 햇살이 손짓하는 장수산으로 봄 마중을 다녀왔습니다. 같이 나 이 들어가는 친구와 함께, 발걸음도 가볍게. 소풍날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찾은 곳은 ‘인천나비공원’. 장수산 일대 50만㎡에 푸르게 펼쳐진 생태숲, 인천나비공원엔 봄기운이 완연했습니다. 한들한들 연둣빛 앞사귀 사이로 살랑살랑 나비들이 춤추고, 꽃나무에선 톡톡 생명이 움트고 있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아 나와, 탁 트인 하늘을 향해 조금 걸으면 ‘장수산 무장애 나눔길’에 다다릅니다. 무장애 나눔길은 일반적인 숲길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약자, 휠체어 또는 유모차 사용자 등이 불편 없이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길입니다. 모처럼 느끼는 산의 향기가 몸과 마음에 밝은 에너지를 선사합니다. 절로 마음에 따스함이 차오릅니다. 그 길에 서서 친구와 마주 보며 약속했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이 슬그머니 사라지기 전에, 인천 곳곳의 무장애 나눔길 투어를 함께 나서보자고.

다음 호의 주인공은 바로 나!

인천사진관 ‘仁·生·네·컷’에 참여를 원하시는 시민께서는 가족, 친구 등 사진을 함께 찍을 분들의 간단한 소개와 짧은 사연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채택되면 기억에 남을 멋진 사진을 촬영해드립니다. **참여 신청** gmi2024@naver.com

POSTCARD

독 자 엽 서

보내는 사람

요금 수취인
후납 부담

발송 유효 기간
2024.01.01~2024.12.31

인천남동우체국
제40094호

받는 사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홍보기획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2

1

5

5

4

04 APRIL 2024
INCHEON MONTHLY MAGAZINE

굿모닝인천

소청도
사진 유승현 포토디렉터



@

독자 연서를 보내주시는 분 중 추천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문의 032-440-8305